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95호

Wednesday, April 17, 2024 A

워싱턴서 ‘뱅크오브호프’ 사라지나

VA애난데일, 센터빌 지점
조지아 ‘프라이스원 뱅크’가 인수



뱅크오브호프가 버지니아 애난데일, 센터빌 지점 두 곳을 매각했다.

은행 측은 지난달 28일 조지아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한인은행 프라이스원뱅크와 뱅크오브호프의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점, 센터빌 지점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뱅크오브호프 박인영 부행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프라이스원뱅크와의 인수 조건에는 해당 지점 직원의 고용 승계가 포함돼 있어 고객들이 겪는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며 “상호만 변경되는 것일 뿐 기존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는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뱅크오브호프 지점 인수합병 소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페어팩스 거주 권 모씨는 “워싱턴지역 한인자본을 타주 한인 커뮤니티 은행에 종속 당하면서 한인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

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전했다. 박 모 씨는 “뱅크오브호프의 이름과 규모를 믿고 계좌를 열었는데, 지점이 그대로라고 해도 믿을 수 없다. 타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점 인수를 단행한 프라이스원 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스원 뱅크는 일찍부터 버지니아 진출을 꿈꿔왔던 것으로 알려져 이미 2019년1월 버지니아에 용자사무소(LPO)를 개설하기도 했다.

은행 측은 이밖에도 뉴욕, 텍사스, 콜로라도 등에 LPO를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스원 뱅크는 SNL 파이낸셜이 선정하는 자산 10억달러 미만 커뮤니티 은행 톱 100위 안에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내실있는 경영으로 정평이 높다. 프라이스원 뱅크는 2008년11월6일

애틀랜타 둘루스 지점을 시작으로 성장해 현재 전국 7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금융기관 결산 보고서(2023년12월31일말 기준)에서 프라이스원 뱅크의 이자수익은 4232만6천달러, 당기순이익은 1226만8천달러로 기록됐다. 또, FDIC가 공개한 프라이스원 뱅크의 대차대조표(2023년 12월31일말 기준)에 따르면 총 자산 7억1527만2천달러, 풀타임 직원은 86명이다.

한편 지난해 전략적 조직개편을 단행한 뱅크오브호프는 월셔/맨해튼, 메이플, 헌팅턴파크, 오클랜드 등 캘리포니아 지점 4곳과 일리노이 시카고 글렌뷰 지점, 텍사스 달러스 포트워스 지점을 정리했으며 이번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점 매각 건이 완료될 시 뱅크오브호프의 지점 수는 9개 주 48곳에서 8개 주 4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뱅크오브호프의 지주회사인 호프뱅크 Inc.는 나스닥 상장기업(NASDAQ:HOPE)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이 191억3천만달러에 이른다. 김윤미기자

아메리칸 드림 소득, 10만달러는 옛말

MD 18만4579불, VA 17만4580불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소득 10만달러 가정도 필수 생활비 조달에 허덕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소득 조건이 급상승하고 있다.

CNBC와 자산관리업체 고우뱅크 레이츠닷컴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의식주와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은 메릴랜드가 18만4579달러, 버지니아가 17만4580달러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총비용은 연간총소득의 50%로 구성돼 있었다. 30%는 재량 지출 비용, 20%는 저축으로 빠져나간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소득이란, 결혼 후 2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평균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출한 후 레저 등 취미 및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은퇴를 위한 저축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수준을 말한다. 이 경제수준이 예전에

는 연소득 10만달러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 계층의 소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메릴랜드의 경우 중간주택(41만825달러)을 보유한 경우 연간 총비용이 9만2289달러로, 그로서리(8841달러), 반려동물 케어(1480달러), 차량비용(8704달러), 모기지(3만753달러), 헬스케어(7198달러), 교육비(3130달러), 자녀양육(2만5589달러) 등 이 소요됐다.

버지니아는 중간주택(38만3327달러)을 보유한 경우 연간 총비용 8만(7290달러)로, 그로서리(8359달러), 반려동물 케어(1294달러), 차량비용(8707달러), 모기지(2만7497달러), 헬스케어(7553달러), 교육비(2738달러), 자녀양육(2만4929달러) 등으로 지출된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필요소득은 50개주 모두 10만달러를 넘었으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비롯한 38개주가 14만달러를 초과했다. 김유채 기자



차보험료, 일반 물가 7배 뛰었다

대학 학위 취득자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상승세가 하늘을 찌르며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한 달간 자동차 보험료가 2.6% 오르면서 1년간 22.2%가 인상돼 역대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다. CPI가 지난달 0.3% 올라 전년 대비 3.2% 인상된 것에 비하면 자동

차 보험료 상승세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보험료 비교사이트 인수어파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2019달러로 2022년(1633달러), 2021년(1567달러)보다 각각 24%, 29%가 급등했다. 참고로 지난 2021~2022년 1년간 보험료 상승률은 4.2%에 불과했다.

이는 중간 가구 연 소득의 3.4%에 해당하며 주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본 보험료 역시 지난해 1154달러로 뛰었다.

보험사 손실 커지자 요율 인상 2021년보다 30% 가까이 뛰어

뱅크레이트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평균 2314달러로 월 193달러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는 팬데믹 이후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가 공급망 부족, 정비공 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센서, 카메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탑재가 늘면서 차량 수리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낙희 기자

▶ 4면 ‘차보험료’로 이어집니다



파리 올림픽 성화 불꽃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 유적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성화 채화 행사에서 배우 메리 미나(오른쪽)가 성화봉에 불을 붙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아요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50주년 기금 모금 만찬

GOLDEN JUBILEE: Honoring the Past, Inspiring the Future

행사 일시 2024년 4월 21일 (일)
오후 5:00 리셉션, 오후 6:00 프로그램

행사 장소 Hilton McLean Tysons Corner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 후원금 : \$200/인
▶ 참석 및 후원 문의: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지니아 지역 : 703-354-6345 ■ 메릴랜드 지역 : 240-683-6663

후원자 명단 (4/15/2024 현재)

김종연 이사, 강동인 강수진 이사, 김상희 이사, 모니카 리, 박용걸 & 박완다, 박찬호 & 박명자, 박현선, 변성림 이사, 사라 강 이사, 에버그린 타이틀 (김진아 이사장), 에버그린 법률 사무소, 에이미 박 이사, 연수진, 열린문 장로교회, 영 임 이사,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워싱턴한인교회, 워싱턴 가정 상담소,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한인연합장로교회, 이상남, 제이미 박 이사, 존 김 이사, 지구촌 슈퍼마켓, 정옥형, 필립 조 이사, 한미장학재단, 한연담, Center for Korean American Heritage Inc., Gina Kim-Ahn, Hunters Woods Fellowship House, Korean Community Senior Housing Corporation, KAMA, Kwang Lee Construction, Lohmann & Rim, P.C.,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 Moon, Park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Morgan Stanley, NCBA Housing Management Corp., Subling California Inc., SuprTEK, Tiffany Chew, US Food Supply Inc., VA 글로벌 어린이 재단, Yongkoo Kang & Netfix

이사장: 김진아 / 만찬 위원장: 존 김 / 만찬 부위원장: 임혜진

윤 대통령 ‘그러나·하지만’ 15번, 4시간 뒤 “국민 뜻 못살펴 죄송”

국무회의서 “올바른 국정방향” 강조 뒤늦게 “국민 회초리” 총선 사과 전문가 “매번 이러한 진정성 의심” 야당 “반성 대신 변명만, 국민 외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 엿새 만의 첫 육성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선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12분간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방향 잡으려 노력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은 대체로 ‘선(先) 성과, 후(後) 반성’ 형식이었다. 국민(22회 언급), 민생·정책(각각 11회)을 앞세워 그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을 일일이 소개하고는 “그러나·하지만” 같은 접속사를 15번이나 쓰면서 이런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불안한 물가 상황에는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의 형편을 개



1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선하는 데에 미쳐 힘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에는 “애썼지만,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도 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안정세를 먼저 언급한 뒤 “(세입자 등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고, 주식시장 역시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조치 등을 언급하고 나서 “그러나 미흡했다”고 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 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대 증원 이슈는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강재정 기조에

있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때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거대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도 없었다.

반면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는 4시간쯤 뒤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2시쯤 기자들을 따로 만나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당 참패에 대해서도 “당선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적 육성 표현은 아니지만, 비공개 발언으로 책임을 진 모습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했다. 역명을 요청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을 향해 몸을 낮추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의미

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비공개 발언의 온도 차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도 윤 대통령은 51분간 강경 일변도였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 성태윤 정책실장이 ‘2000명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며 “매번 이런 식이면 진정성에서 의심이 든다. 공개 발언 뒤 여론이 좋지 않으니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며 “조금이라도 국정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다짐과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 재선급 의원은 역명을 전제로 “말로는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챙기겠다는 건지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알맹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도 여소야대 상황인데 공개 발언에서 ‘영수회담’ 제안 등이 나오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일훈·박태인·이창훈 기자

대통령 “인사 기준은 전문성, 학벌 안 따져”

‘서울대 법대 검사’ 선호 지적에 밝히 총리 인사, 국회 개원 후 기능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앉히는 정치적 인사는 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아닌 학벌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인사 기준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을 선호한다는 비판에 답답해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최근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야권에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해왔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

하고 검사로 재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의 예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들었다고 한다. 박 장관(고려대)은 국토교통부 관료, 신 장관(육군사관학교)은 3성 장군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인사에서도 전문성이 가장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새 총리 임명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 청문회엔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린다”며 “인사 검증도 해야 해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인 인재난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박태인 기자

워싱턴 날씨 (°F)

18일(목)	76-52	21일(일)	59-47
19일(금)	63-57	22일(월)	65-48
20일(토)	67-48	23일(화)	70-51

4월 17일(수) 68~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AmTrust FINANCIAL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스마트보험 BY SOLOMON AGENCY

703.639.0882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스킬 게임 금지? 복권도 안 팔아”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스킬 게임 머신 법안에 대해 매우 복잡한 수정 의결권을 요구해 사실상 스킬 게임을 불법화하자 이에 항의해 복권 판매를 중단한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

스킬 머신은 슬롯머신과 유사한 전자 게임 기계로, 불법화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컨비니언 스토어 순소득의 30~40%를 차지하기도 했다. 스킬 게임 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버지니아 컨비니언 스토어연맹에 따르면, 복권 판매 보이콧을 하는 업소는 500여곳에 달한다. 이들은 특정시간대를 정해 일제히 복권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기존의 카지노와 전자경마장 이익 보호를 위해 카지노 등이 설치된 댈러스, 로아노크, 마틴스빌 등의 카지노 반경 35마일 이내 지역의 스킬 게임 설치를 금지하는 수정의결권

스킬게임 머신 금지법안 반발 업주들 복권판매 중단으로 ‘항의’



을 행사했다. 또한 지역정부가 스킬 게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력 양여 조항도 삽입했다.

지역정부가 등록유권자의 2.5% 혹은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금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법으로 스킬게임을 허용했음에도 지역정부가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주법을 지역조례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한 라이선스 비용으로 9천달러를 부과함으로써 영세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스킬 머신 한 대당 연간 7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업소 당 3대까지만 허용했다. 트럭 휴게소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2만1천달러이며 최대 7대의 기계만 허용했다. 더군다나 스킬 머신 규제 당국을 버지니아 알콜단속국(ABC)에서 버지니아 복권국으로 이양함으로써 행정규제의 난맥상을 고의로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 복권국은 복권 수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스킬 게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곳이다.

컨비니언 스토어 업주들은 복권국의 조직적인 방해 탓에 영킨 주지사가 이 같은 수정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차량절도 증가율 워싱턴 지역 최대

DC 1위, MD 2위 현대-기아 챌린지 원인

워싱턴지역 차량 절도사건이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전미보험범죄연구소(NICB)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19년 이후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해 2023년 102만 729건을 기록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는 2022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64%와 63%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3위 코네티컷은 3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두번 이상 차량절도 피해를 당한 주민도 많았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은, 현대-기아차 특정 차종

을 노리는 범죄가 다수를 이룬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2011~2022년 산 특정 모델의 경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혀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차량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20만8668건)였으며, 인구대비 차량절도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워싱턴DC였다. 워싱턴DC는 인구 10만명 당 차량절도사건이 1150건에 달했다. 당국에서는 현대-기아차로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든지, 운전대 잠금장치를 구입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욱재 기자



호건 전 주지사 한인사회 유세 나서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래리 호건 전 주지사(공화)가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호건 전 주지사는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지난 14일 메릴랜드 한인타운인 하워드 카운티 앨리웃 시티 지역에서 유세 활동을 펼쳤다.

호건 전 주지사는 골퍼지 식당, 롯데 플라자, H마트 등에서 한인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셀카도 찍으면서 ‘친한인 정치인’을 표방했다. 호건 전 주



래리 호건 전 주지사 부부가 후원행사에서 주요 지지자들과 함께 했다

지사를 기억하는 많은 한인들도 이같은 모습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호건 주지사 부부는 이날 또한 한인 지지자들이 마련한 후원행사에도 참석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지사 선거 당시 성원해 주었던 한인들의 지지를 잊지 못한다”면서 “미국

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이상민 롯데플라자 사장, 강고은 옴니호텔 대표, 한기덕 트리플서 도매상 대표 등이 주요 후원자로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회원의 날 행사로 9600달러 후원금 마련”

글로벌 어린이재단 DC지부

글로벌 어린이재단 워싱턴DC 지부(회장 이미미)가 지난 13일, 메릴랜드 락빌 소재 베일타운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총 37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미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기보고, 회계보고 등 순서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특히 오는 6월2일 열리는 ‘기금마련 골프대회 행사’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회원의 날 행사에서는 임원진

들이 직접 담근 과감치와 깍두기와 앞치마 등의 상품들을 판매해 총 9600달러의 판매수익(기부금 포함)을 마련했다. 협회 측은 수익 전액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올해 계획으로, 밀알 어린이봉사(5월), 기금마련 골프대회(6월), 살렘 어린이봉사(6월), 가을 피크닉, 일본총회(9월), 난민 어린이 봉사(12월) 등을 앞두고 있다. 김윤미 기자

“자기에 대한 탐구를 향해”

워싱턴 가정상담소 2024년 봄 특별 세미나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조이 박)가 강혜정(사진) 박사와 함께하는 2024년 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 줌 미팅으로 진행되는 특별 세미나는 4월23일, 5월21일, 6월18일 3회에 걸쳐 진행되며 1강의 주제는 ‘너를



들이쉬고 나를 내쉬다, 2강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3강 ‘헛된 자기복구 시도’ 등으로 이뤄진다.

강사로 나서는 강혜정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703-761-2225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웃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LA폭동 32주기 평화대행진 개최

“다음 세대에 역사 알려야”
당시 타운 지킨 이들에 시상



해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평화대행진 행사는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1992년 4.29 폭동 당시 처음 약탈과

방화가 시작된 상가 주차장(1355 W. Florence Ave)에서 시작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무대에서 남가주기독교총연합회 목사회장 기도, 한-흑 다민족 커뮤니티 화합 기원 촛불전화, KCBC 기독교합창단, 세계탈북인협회아리랑평화통일무용단, 태권도 시범 등으로 시작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다같이 평화대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주최 측은 4.29폭동 당시 한인타운 지키기에 앞장선 봉사자를 찾아 ‘제3회 한인타운 지키기상’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흑인 커뮤니티 인사와 단체가 여럿 참여한다. 주최 측은 한인교 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평화대행진 퍼레이드에 함께 할 한인단체 문의(213-503-2007)도 환영했다. 김 총재는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가 퍼레이드에 참여하면 1세대가 겪었던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기자

“4.29 LA폭동을 겪은 이민 1세대는 고령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잿더미에서 새롭게 한인타운을 일군 아픔과 역사를 다음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하지 않겠어요.”

4.29폭동 32주기를 맞아 당시 약탈과 화재가 처음 시작된 장소에서 ‘평화대행진 퍼레이드’가 열린다.

그동안 4.29 평화대행진은 월드스페셜연맹(총재 존 김사진)이 주최해 왔다. 사우스LA에서 태권도, 검도, 킥복싱 등 무도를 알렸던 김 총재는 2년여 만에 평화대행진을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한인사회와 흑인 커뮤니티 간 소통과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4.29폭동이 발생한 지 32년이 지났고, 많은 분이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4년 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웨스트 LA 상가가 약탈당하고 불에 탔다. LA한인타운에는 주방위군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있고 싶다면 과거의 아픔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젊은 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여러 커뮤니티가 계속 소통하며 이

“대선 결과 고려한 선제대응 필요”

국회서 한인경제포럼 개최
북미 진출 성공 전략 논의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국제통상전략연구원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통상 전략을 논의하는 ‘2024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제공]

북미 지역 수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 산하 국제통상전략연구원(원장 안경률)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15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4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북미지역 성공 진출을 위한 통상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전략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현지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조병태 월드옥타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한 세미나에서 김진정 ALC법률그룹 대표 변호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주제로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도 보호 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와 견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트럼프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공세적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보복관세나 에너지 안보 정책 등 경제 민족주의가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원산지 사전 검증, 합법적 원산지 변경, 생산 기지 숙고, 제품별 예외 신청 등을 제시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

장은 ‘2024 북미 지역 경제·통상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미지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변화된 경제·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차별화된 통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이영중 월드옥타 이사장, 이희범 부영그룹회장, 최종경 한미협회 회장과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등 재외 한인 무역인과 경제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라카냐다 한인 시의원 업무 시작

디즈니 부사장 출신 지니 합슨



“보다 나은 환경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스몰비즈니스 번창을 돕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지니 김 합슨(사진)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시의원이 16일 오후 5시 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의원 업무를 시작했다. 합슨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인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다른 중대형 도시와 달리 라카냐다는 개발할 대형 대지가 없는 상태”

라며 “다만 주거 비용이 안정되고 주민들이 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라카냐다 교육구는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지역 내 주택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현재 크레센타밸리 세리프와 계약을 맺고 치안을 돌보고 있으며, 소방국은 카운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슨 의원은 “재정상 독

립적인 기관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슨 시의원은 기존에 해오던 YMCA 이사직 봉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그는 “YMCA는 시정부의 그랜트 프로그램 혜택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관련 안건 투표가 있다면 투표에 불참할 예정”이라며 “오히려 양쪽에서 일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인사회에 대해 그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캠페인을 도와준 라카냐다 한인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관심을 가져준 한인사회 언론에도 고마운 마음이며 반드시 시의회에서 모범이 됨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연방법원 치안판사에 한인 임명

가주지법 김지수 변호사



한인이 가주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연방법원 가주 동부지법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로 김지수(사진) 변호사가 지난달 29일에 임명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신임 치안판사의 임기는 8년이다. 지난 2월 캔달 뉴먼 치안판사의 은퇴로

인해 생긴 공석을 맡게 된다.

김 신임 판사는 임명 전 법조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9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윌리엄 슈바르처 판사 등의 사법 서기직을

담당한 바 있다. 치안판사 임명 직전에는 연방검찰 가주 동부지법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민사 부서 책임자로도 활동했다.

한편,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UC데이비스, UC샌프란시스코 법대에서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열 기자



자동차 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1면 ‘차보험료’에서 이어집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미첼 측은 팬데믹 이전에는 자동차 수리 비용이 연간 3.5%~5%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10% 이상 오르면서 지난해 평균 수리 비용이 4721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이후 자동차 사고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액이 늘었다. JD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험사가 징수한 1달러당 평균 12센트의 손실을 보아 20여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도 보험료 인상을 부추겼다. 질리크루터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줄리아 폴락은 “팬데믹 이후

자동차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규제 당국에 보험료 인상 요구에 나섰으며 결국 승인을 받게 돼 보험료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문제가 개선되기도 전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뱅크레이트의 애널리스트 새넌 마틴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차 가격, 부품 및 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큰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손실 만회를 위해 요율 인상에 나선 것”이라며 자동차 구매에 앞서 보험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워싱턴에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

의사원들 “한미관계 강화”

한국과 미국 의회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인 ‘한미의회교류센터’가 16일 워싱턴DC에서 문을 열었다.

미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의회 의원과 싱크탱크 관계자,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미의회교류센터는 한미관계 강화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 필요가 커진 상황에서 의회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개설됐으며 미국 의회에서 약 3km 떨어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건물에 입주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리셉션에서 한미관계의 공간 발전을 언급하고서 “한미 양국이 이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간에는 미국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에 22대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한미의원연맹을 발족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도 기존의 코리



미국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등 여야 대표단이 16일 워싱턴DC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아 코커스 스티디그룹을 좀 더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의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미국 의회의 친한파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하원의원은 “내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굳건한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미관계가 더 좋아질 것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으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세스 몰턴(민주·메사추세츠) 의원은 “난 최근 필리핀에서 필리핀, 미국, 한국 3개국의 해병이 합동 상륙 훈련을 하는 것을 참관했는데 이것은 중국 같은 적들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그 스탠턴(민주) 하원의원은 “나는 삼성이 애리조나 대신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도 이 자리에 왔다. 다음에는 우리가 유치하겠다”라며 “우리가 양방향으로 이런 경제 협력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해 세계에 우리가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에 보조금 64억불 파격 지원

바이든 “한미동맹 기회창출 사례”

삼성전자가 연방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빅테크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삼성은 미국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로 늘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연구개발(R&D)부터 파운드리(위탁 생산)와 패키징까지 종합 반도체 생산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15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인텔(85억 달러)과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액수다.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삼성전자가 14.2%로 TSMC(8.5%)나 인텔(10.2%)보다 높다. 앞서 TSMC가 미국 투자금을 늘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대미 투자금액을 기존 약속한 액수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팹(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이듬해 착공했다.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일정이었으나, 보조금·건설 지연 문제로 본격 양산은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연방 상무부 관계자



지난 11월 텍사스주 테일러에 위치한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는 전날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서 “테일러의 첫 번째 팹에서 4나노(나노미터, 1nm=10억 분의 1m)뿐 아니라 2나노 반도체까지 생산할 것”이라며 “두 번째 팹에서도 2027년 2나노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삼성의 텍사스 생산 기지는 AI 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칩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투자 의지와 한미 동맹이 미국 곳곳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지니 러몬도 상무장관은 “삼성의 투자로 10년 안에 세계 첨단 칩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혜리 기자·워싱턴=강태하 특파원

팬데믹 때 호황 배달전문 식당들 ‘전략 수정’

팬데믹 때 급성장했던 온라인 배달 전문 식당이 속속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형 외식업체들은 최근 레스토랑을 직접 찾는 방문객들의 증가세를 고려해 배달 전용 전략을 재설계하고 있다.

웬디스의 경우 2021년 발표했던 배달 전용 매장 700곳 증설 계획을 철회했고, 크로거는 지난해 이른바 ‘유령 주방’(배달 전문)을 폐쇄했다고 한다.

이는 음식 배달 주문에 따른 과도한 주방 업무 폭증과 고객 불만 증가 등 압박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현지에서 ‘가상 식당’(Virtual restaurant)이라고도 부르는 배달 전문 업체들은 팬데믹 당시 넓은 공간을 임대할 필요 없



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는 장점 덕에 외식업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투자자들은 이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머라이어 캐리와 위즈 칼리파 같은 유명인들은 쿠키와 치킨 너겟 등 메뉴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상가임대 전문 업체인 CBRE는 “2025년까지 유령 주방은 업계 매출의 21%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진정되고 고객들이 다시 식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불과 3년 만에 이런 예상은 빗나가고 있

다.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의 외식서비스 부문 분석가인 도로시 캄바는 NYT에 “소비자들은 다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면서 브랜드 자체와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며 “배달 전문 식당은 소비자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배달 전문 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도 이런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달 주문이 대부분 레스토랑에서 하루 중 가장 바쁠 때 몰리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배달 음식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직접 식당을 찾게 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배달 애

플리케이션(앱) ‘우버 이츠’는 지난해 사람들의 각종 불만으로 약 8000개의 식당을 자신들의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구독자 수가 2억 5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브 미스터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는 2020년에 ‘버추얼 다이닝 콘셉트’와 협력해 미스터비스트 버거를 출시했으나, 음식 품질에 대해 고객 불만이 쏟아지자 뉴욕 법원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버추얼 다이닝 콘셉트 역시 미스터비스트 측에서 온라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비판적 글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화소통)
대장금(미화소통)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7) 7400524

미국·중국 국방장관, 17개월만에 소통 재개

미국, 북한 도발에 우려 표명
미,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중요성 재차 강조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동진 중국 국방부장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달 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중간 '대화 모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방부 장관이 17개월만에 화상 회담을 하면서 한동안 단절됐던 군사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복원되는 모습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동진 중국 국방부장은 16일 화상 회담을 하고 국방 관계, 역내의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양국 간 군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보

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동진 부장과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생산에 필요한 전자부품 등을 공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측간 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중국도 이란 등을 연쇄 접촉하고 상황 관리에 나선 상태라는 점이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간 국방부 장관이 소통한 것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중국을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대군' 채널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중단했으며 이후 다른 대화는 재개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으며 이달 초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중은 ▲ 지난해 12월 합참의장간 화상 회담 ▲ 지난 1월 국방정책조정회

담 ▲ 지난 3~4일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작업반 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으며 이번에 국방 장관간 화상 회담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일정상회담, 11일 미·일·필리핀 3국정상회담을 하면서 남중국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격자형 안보구조 구축을 강화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을 마일 정상회담 및 마일·필리핀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격과 비난"이라고 반발했으나 국방장관간 소통은 진행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국방부는 앞으로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군 당국자간 향후 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인들, 이스라엘 보복시사에 좌불안석

이란인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시사한 가운데 전쟁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각종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인들은 이번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이 몰고 올 파국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란 북부 아물에 사는 올해 45세 교사인 헤삼은 긴장 격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몹시 나쁜 뉴스일 뿐이라고 밝혔다.

헤삼은 경제적 압력이 커지고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 아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두 아이와 함께 중부 야즈드에 사는 올해 37세의 가정주부인 파르바네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서방의 제재와 부정부패 등으로 그렇기 않아도 고통을 받는 자국 경제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르바네는 이란인들이 지난 수년간 충분히 견뎌왔다면 전쟁은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이 이뤄지면서 달러화에 대한 이란 리알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실거래 환율을 제공하는 본바스 트닷컴에 따르면 보복 공격이 이뤄진 지난 13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란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70만5천리알까지 급등했다.

테헤란의 한 기업인은 일요일 이후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화를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온건과 진영의 전 관리자는 많은 사람이 경제난과 사회적 제약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뤄지면 억눌렸던 분노가 터지면서 시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의 한 엔지니어는 외국인들이 이란을 떠나면 이는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란인들은 더 고립되고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서북부 타르비즈의 공무원인 호세인 사바히는 먼저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보복해야만 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바히는 이스라엘도 이란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형사재판 이틀째... 배심원 선정작업 지속

“열리지 말았어야 할 재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6일 이틀째를 맞아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안 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애초 이 재판은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에 법률비용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톰피 대니얼스와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 이틀째인 이날도 전날에 이어 배심원 선정 작업이 재개된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중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예비 배심원 명단에서 즉시 제외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다. 그외에는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배심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즐겨 보는 뉴스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질문을 통해 트럼프 측에 우호적인 배심원을 최대한 가려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전직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서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배심원단 선정에만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루스소셜 'TV스트리밍 플랫폼'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TV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는 16일 라이브 TV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TV는 뉴스 네트워크, 종교방송, 가족 전화 콘텐츠에 집중할 예정이다.

트루스 소셜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는 16일 라이브 TV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TV는 뉴스 네트워크, 종교방송, 가족 전화 콘텐츠에 집중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디어는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이 취소됐거나 취소 위험에 있는

콘텐츠, 압박을 받고 있는 콘텐츠도 스트리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루스 소셜의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는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 계획 발표 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오전 10시께 전장 대비 9% 넘게 급락해 거래됐다.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중동불안·소비호조에 증시 ↓·채권금리 ↑…공포지수 최고

다우지수 6거래일 연속 하락세
S&P 500·나스닥 각각 1%대 ↓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소비 호조 지속 영향으로 15일 국제 수익률이 치솟고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7,735.11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지난 8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연초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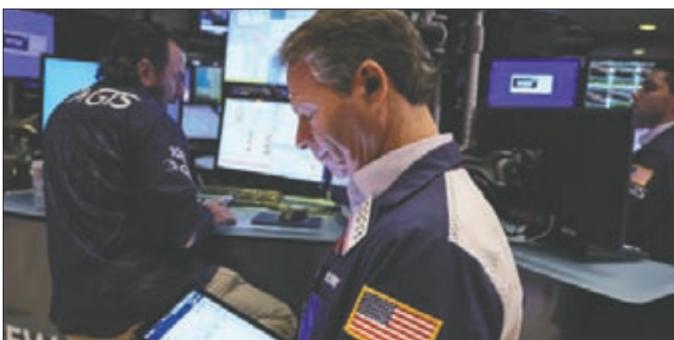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90.08포인트(-1.79%) 떨어진 15,885.02에 각각 마

감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기대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게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 증가율도 종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깜짝 반등'한 가운데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늦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AFP 연합뉴스]

게, 더 적게 내릴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위험회피 심리를 키웠다.

'공포지수'로도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전 거래일 대비 1.84포인트 상승한 19.15를 나타냈

다. 이는 작년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스엔드 프라이빗웰스의 알렉스 맥그래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동에서 나오는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모든 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할 것이라 보도에 5.59% 급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는 데이터 관리업체 인포타카 인수 협상 소식에 7.3% 급락했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1분기 호실적에 2.9% 상승했다. 국제 금리는 급등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은 이날 증시 마감 무렵 4.61%로, 지난 12일 오후 4시 대비 9bp(1bp=0.01%포인트) 올랐다.

“트럼프 경제참모, 달러 가치 절하 구상”… 제2의 플라자 합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5일 보도했다.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3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설계한 인물로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트럼프 2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면 미국이 세



계 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출이 늘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2기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과대 평가된 달러가 무역적자 원인이라는 시각 때문에 환율 재평

가를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폴리티코가 취재한 전직 당국자들은 환율 정책의 세부 내용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선거 전후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이 달러화를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방안, 또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환율 협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달러화를 평가 절하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달러화 표기 자산의 가치가 탕탈아 하락할 수 있어 월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트럼프가 금융업계 출신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평가 절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평가 절하는 라이트하이저가 재무장관이 될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때 달러의 평가 절하를 자주 주장했지만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과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장 등 월가와 가까운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닥쳤고, 트럼프 본인이 자신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당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평가 절하 제안을 묵살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와 트럼프 캠프는 폴리티코의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는 작년에 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의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과대 평가된 달러를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개입 등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달러화의 과대평가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면 외국 투자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려 외국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또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려면 동등한 가치의 제품을 미국에서 수출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책 효과 봤나… 중국은 1분기 5.3% 성장

올 1분기(1~3월) 중국 경제가 5.3%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5.0% 안팎)에 다가섰다.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 국면에 돌아섰다는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내수 개선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9조 6299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6%)를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4분기(5.2%) 수치도 상회했다.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전체적으로 1분기 국민경제가 양호한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연초 총질(음력 설)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나고, 제조업 투자와 수출이 늘면서 1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표된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산업생산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규모도 1분기 전년 대비 5% 늘었는데(위안화 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4.9%·5.0%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가 이어지긴 어렵

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에 두드러졌던 경기 회복세가 3월 들어 꺾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3월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1.3% 늘었는데, 이 중 수출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각각 3.1%·4.5%로, 1~2월(5.5%·7%)에 비해 둔화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3월 지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약세임을 보여준다”면서 “전반적인 성장 모멘텀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슈 블롬버그 이코노미스트도 “1분기 경기 회복은 주로 공공 투자에 의해

이뤄졌다”며 “생산과 민간 수요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도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부동산 부문 투자는 9.5% 감소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대출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회복세는 더디다. 70대 도시 신규주택가격은 최근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27년까지 도시·인프라·교육·의료·교통 등 7대 분야

의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25%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래된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새것으로 교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등 소비를 촉진하는 안도 내놨다.

이같은 재정정책으로 정부 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0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7.1%를 차지해 지난해(5.8%)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재정정책이 앞으로 몇 년간 성장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호정 기자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북한, 극단적 고립”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첫 방한 DMZ 둘러본 뒤 탈북청년과 대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모든 옵션 검토해 대안 만들 것”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왼쪽 두번째)가 16일 파주 비무장지대(DMZ) 방문했다. 왼쪽은 폴 라케머라 유엔사령관이다. [뉴스]

“북한은 고립의 가장 극단적인 예다.”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6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본 뒤, 오후에 서울 용산의 주한미국 대사관 공보과에서 젊은 탈북민들을 만났다. 이어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도 참석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DMZ를 방문해 국경 너머로

북한을 봤다”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봉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에도 전 세계에는 다자주의에서 떨어져나오면서 국가와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지도자들이 또 있다”며 “그러나 이는 틀린 약속이자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관으로 일하며 깨달은 점은 역내의 도전은 전 세계적인 도전

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와 질병은 국경을 모르며, 국지적 충돌도 전장 밖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DMZ를 방문했을 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런 계획을 밝힌 건 처음이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메커니즘이 유엔 내에서 활동한다면, 총회 산하에 두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안보리 산하는 아니지만, 유엔 차원에서 권위를 갖고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유엔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안보리 산하에 뒀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연장을 위해 총회 차원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 유엔 밖에 협의체를 꾸릴 경우 이런 부담은 없지만, 유엔 차원의 보고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일본을 비롯한 뜻을 함께하는 다른 이사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문가 패널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지고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며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는 경우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Of course)”고 답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방한은 그가 2021년 1월 20일 유엔 대사로 임명된 후 처음이다. 미국의 유엔 외교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6년 10월 서맨사 파워 전 대사의 방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미 내각 회의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여하는 장관급 각료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DMZ를 찾은 건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북한을 향해 “전문가 패널이 종료돼도 다른 방법으로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기자

한미, 북한인권 협의 “북한, 핵·미사일 집착에 인권상황 악화”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 같은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 요구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또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역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 무대를 포함한 각종 계기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왼쪽)과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성에 공감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차기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이번 방미 동안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면담을 통해 북한 대내외 동향 및 북러 관계,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루슈디 “트럼프 당선 맨 미국 떠날 수도”

《악마의 시》저자

2년 전 피습사건 그린 책 ‘칼’ 출간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의 삶은 2022년 8월 12일 전과 후로 나뉜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주 거론돼온 그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강연을 하다가, 귀환의 칼에 10여 차례나 찔렸다.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으나 오른쪽 눈은 실명, 왼손은 자유롭게 쓰기 어렵게 됐다. 간역시 제 기능을 잃었다.

이후 은퇴설이 돌던 그가 최근 신간을 냈다. 제목은 『칼(Knife)』. 칼에 찔렸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내용이다. 외신

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았다튀 책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루슈디는 죽음과 스쳤던 기억을 직시하며, 그 이후의 고통스럽고 오래 이어지는 회복의 과정을 서술한다”고 적었다.

루슈디는 책에서 칼에 찔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한다. 자신에게 “피의자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몰랐던 걸 감사히 여기라”고 했던 의사의 말도 소개한다. 범인을 등장시켜 가상 대화도 나눈다. 범인 하디 마타르는 범행 후 뉴욕포스트에 “루슈디의 강연을 많이 봤는데 솔직하지 못하다”며 “나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싫다”고 말했다. 루슈디는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은 솔직한 척하지만, 가면 쓰고 거짓말을 한다”며 “그렇다고 그들을 다 죽일 이유가 성립하는가”라고 되묻는다. 범인을

.....
귀환의 공격을 받고 오른쪽 눈을 실명한 작가 루슈디와 그의 신간 『칼』. [AFP·AP·연합뉴스]

.....

.....

.....

.....

.....

.....

.....

.....

.....

.....

.....

.....

.....

.....

.....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력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p>스프링 필드 타운홈</p> <p>PENDING</p> <p>\$670,000</p> <p>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지하 워크아웃</p>	<p>페어팩스 싱글홈</p> <p>\$785,000</p> <p>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p>	<p>페어팩스 타운홈</p> <p>UNDER CONTRACT</p> <p>\$800,000</p> <p>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p>	<p>리스버그 싱글홈</p> <p>COMING SOON</p> <p>\$800,000</p> <p>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p>	<p>페어팩스 타운홈</p> <p>COMING SOON</p> <p>\$800,000</p> <p>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p>
--	---	--	--	--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보수 기독교계, 돈 풀어 트럼프 지원 사격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표심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들은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역에 형성된 '바이블 벨트'를 통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보수 교계가 갖는 위기 의식에 기인한다. 낙태 이슈, 범죄자 처벌 완화, 비판적 인종이론(CRT), 국경 문제, 공립학교의 적나라한 성정체성 교육 정책 등을 바라보는 보수 기독교계 유권자들의 눈빛은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유명 복음주의 단체들의 움직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대선을 20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분위기를 알아봤다.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계가 결집하고 있다.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주 헌팅턴비치에서 트럼프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로이터]

심상치 않다. 저명한 복음주의 단체 '페이스&프리덤(Faith & Freedom)'이 이번 대선에서 역대급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페이스&프리덤이 올해 선거에서 62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출했던 자금(5200만 달러)보다 무려 1000만 달러가 더 많은 액수다.

물론 이 단체는 비영리로 운영된다. 선거와 관련된 큰 돈을 쓰지만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페이스&프리덤의 노림수는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다. 그들의 시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향해 있다. 이 단체는 랄프 리드가 이끈다. 공화당의 오랜 선거 전략가이면서 트럼프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리드는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저명하다. 러시 림보 등과 함께 기독교계에서 유명 방송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심지어 1995년에는 그의 영향력이 워낙 큰 탓에 타임지 커버스토리에도 등장했던 인물이다. 그런 리드가 거액의 돈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의 절실함을 반영한다.

리드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외부에서 이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것은 역대급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돈은 격전지를 중심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위기 의식 팽배한 보수 교계
투표 독려에 거액 투입하기로
바이블 벨트 중심으로 결집 중
11월 선거 향방 가늠할지 주목

그가 말한 격전지는 소위 경합주로 불리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다. 이를 위해 페이스&프리덤을 따르는 12만5000개 이상의 교회가 무려 3000만개의 선거 관련 인쇄물을 찍어 배포한다.

인쇄물에는 현재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낙태, 공립학교 교육 정책 등을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 또, 문자 메시지 발송, 전화,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중요성을 호소하겠다는 심산이다.

'클럽포그로우스(Club for Growth)'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이들 역시 지난 2020년 대선 때 2000만 달러를 들여 트럼프를 지원 사격했다.

물론 올해 대선에서는 아직 지지후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단체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만큼 복음주의 권 단체들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보수 교계 유권자들이 마음 편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전국 유권자(1만2693명)를 상대로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는 백인 복음주의 교인(64%)과 백인 가톨릭 신자(51%) 사이에서 가장 높았을 뿐이다. 그의 교단 소속 교인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급격한 좌회전을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트럼프 카드가 유일하다는 것이 보수 교계사이에서는 중론이다. 이러한 여론은 이미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위협할 것이라 여겼던 론 디샌티스, 니키 헤일리 등이 트럼프에게 맥을 못추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점에 어느정도 배어있다. 한마디로 그래도 믿을 건 '트럼프' 라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드러난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앙적 요소가 아니다. 응답자 2명 중 1명(51%)은 '트럼프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독교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왼쪽으로 기울어 미국의 방향을 다시 오른쪽으로 되돌려 주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리드도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일례로 트럼프는 최근 포크스와 인터뷰에서 낙태와 관련해 모호한 답변을 했다.

트럼프는 포크스의 진행자 선 해니티가 낙태 정책에 대해 문자 잠시 망설이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드는 이에 대해 "트럼프의 답변은 다소 모호했지만 우리 조직은 그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오히려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지난 2016년 대선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한인교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인교계에서는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긴급 서명 운동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립학교내 성 중립 화장실 설치 등을 막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내자는 것이다.

교인 이재룡(40·여바인)씨는 "요즘 정책들을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주는 민주당 성향이 너무 강하다"며 "교계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체로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라도 균형을 잡으려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등불 아래서

세상이 그려놓은 선

학교를 다녀와서 다시 학원을 가지 않아도 되던 시절, 방과 후 골목길은 여름 한날의 더위도 식혀 주던 놀이터였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오징어를 하자, 아니 사방 치기를 하자고 업지를 추켜세우며, 여기 붙으라고 소리치는 합창 소리가 쟁쟁했습니다.

조금 밥그릇 수를 더 쌓았다고 고학년들은 무기를 챙겨서 나옵니다. 구슬과 딱지로 무장하고는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나름 살벌한(?) 각오를 다지며 골목길에 등장합니다. 삼각형을 그리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주머니에서 구슬들을 꺼내 놓습니다. 판에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보다 진지합니다. 엄지 구슬로 선후를

정하면 비장한 삼각형이 시작됩니다. 쪼아 찌기, 깔 패기, 날라 찌기. 이름도 화려한 초식들이 등장하고 탄식과 한숨 그리고 웃음소리가 골목을 점령해 갑니다.

오늘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눈에 힘을 주며 구슬을 노려보지만, 상대방은 엄소가 날름날름 종이를 집어먹듯이 구슬을 따갑니다. 그때마다 소년의 눈빛은 점점 내려앉고 얼굴은 별장게 달아 오릅니다. 그때 갑자기 큰 환호와 탄식소리가 터졌습니다. 잘나가던 상대의 엄지 구슬이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껏 먹은 모든 구슬을 토해내야 하니 그 억울함과 통쾌함이 골목이 떠들썩해집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도 인생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려놓은 삼각형 밖으로 밀려나면 구슬은 죽습니다. 땅에 그린 선이 무슨 힘이라도 있는지, 사방 치기도 오재미도 그렇습니다. 선을 밟아도 죽고, 선 밖으로 나가도 죽습니다.

세상이 그려놓은 선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고, 좌절이며 인생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땅 위에 있지만, 구슬은 더는 놀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지만, 내일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죽어버린 구슬들은 그렇게 내일을 잃었습니다. 그때 엄지 구슬이 삼각형 안으로 선을 넘어들어 왔습니다. 엄지 구슬은 죽었고 다른 구슬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그랬나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아이들의 삼각형에도, 오징어 놀이에도, 술래잡기도 다방구에도 살피보

면 회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서듯 다시 사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좋은 일도, 착한 일도 나를 지으신 이가 없다면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받았지만 자기가 한 듯이 자기 것처럼 살아가니 이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선 밖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 선 안으로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래도 더 예쁜 구슬이어서 살았다고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선을 넘어와 죽으셨습니다. 남보다 나은 깨달음도, 앞서는 능력을 가진 나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한성윤 목사·나사렛교회**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 협상능력 |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은퇴플랜 / 롱텀케어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킴
VA Lic# 639047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Since
1996

의료비 나눔 사업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vel 내용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unit	\$ 195	\$ 150	\$ 90	\$ 45
2units	\$ 365	\$ 290	\$ 180	\$ 90
3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 /년	\$500 /건	\$1,000 /건	\$5,000 /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11/2023 기준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격 69%가 타지 고교 출신

작년 지역인재 채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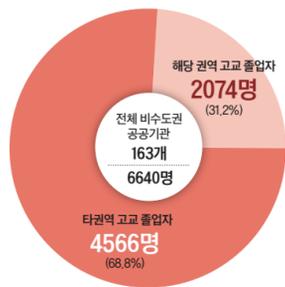
초·중·고 모두 서울에서 나왔어도 지역대 졸업하면 지역인재 대상 대학만 서울로 간 토박이 역차별

지방의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초·중·고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나온 토박이다. 하지만 입사할 때 ‘지역인재’가 아닌 일반 채용 과정을 거쳐야 했다.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판단하는 지역인재 기준은 ‘졸업 대학’뿐이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다니면 지역인재 특혜를 받고, 정작 대학만 다른 지역에 갔을 뿐인 토박이는 아무런 가산점이 없는 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16일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3곳에 신규 채용된 지역인재 6640명 가운데 ‘공공기관 소재지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2074명(31.2%)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중 정작 해당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사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나머지 4566명(68.8%)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입사자의 출신 고등학교 정보가 존재하는 공공기관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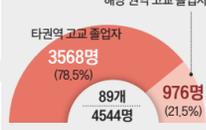
은 고등학교는 다른 권역에서 나왔지만, 대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경우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89곳으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된 지역인재 4544명 중 이전 지역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976명에 불과했다. 비중은 21.5%로 전체 비중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교육부가 취합한 자료로 출신고 정보가 없는 공공기관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지역인재 중 ‘토박이’ 비중이 낮은 원인은 현행법상 까다로운 지역인재 기준에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자료: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실, 교육부

도권에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전체 신규 채용의 30%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이때 지역인재는 해당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다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에 지역인재로 입사할 수 없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영남권·강원권 등 다른 권역 대학에 진학했어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서울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뒤 전남대 등 전남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된다. 지방 출



구직자들이 '부산혁신도시와 함께하는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이 행사에는 부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신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역차별’ 불만이 팽배한 이유다.

문제는 현행 방식처럼 ‘졸업 대학’에 한정해 지역인재를 계속 뽑다 보니 공공기관별로 특정 대학 출신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양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인원 중 전북대 출신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을 전주대(9%)·군산대(6%)·원광대(5%) 등이 나눠 가지는 형국이었다. 부산혁신도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부산대(58%), 경남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상대(67%), 대구혁신도시의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52%),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한전은 전남대(59%), 강원혁신도시의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47%) 출신이 다수였다.

다양성 부족은 곧 파벌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 정진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현상이 고착될 경우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다양성 확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강홍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이른바 ‘연어법’은 이전 지역 소재 대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혁신도시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어렵게 도입된 만큼 대상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편의점 불펜부터 배달치킨까지... 총선 끝나자 줄인상

식품·생필품 제조업체 가격 올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도 인상 가세

“정부 방침에 억눌렸던 가격, 현실화”
원재료값 뛰어 가공식품도 오를 듯

4·10 총선이 끝나자 식품·생필품 제조업체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선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억눌려 있던 소비자 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도 오를 조짐을 보여 생산비 부담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6일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생필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100~500원 오른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가 인상된 데 따른 여파다.

현재 300원에 판매 중인 모나미153 불펜은 다음 달부터 100원(33%) 오른다. 500원짜리 스틱 불펜은 600원(20%

인상)에 판매된다. 스위트롤 라이터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오르고,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10.5% 인상된다. 화장품과 여성용품 가격도 오른다. 뉴트리노나 답클린포밍클렌저(100g) 가격은 1000원(11.2%) 오른 9900원, 엘지유니참의 생리대(쏘피 바디피트) 중간 크기 4개들이 제품은 200원(8.3%) 오른 2600원에 판매 예정이다.

편의점 인기 제품인 가공식품 가격도 오른다. 2개들이 감동란과 죽염동 훈제란 등은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 오르고, 3개들이 햇달걀로 만든 녹차훈제란은 2900원에서 3200원으로 300원(10.3%) 인상된다.

외식업체도 가격 인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전날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 9종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은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남해마늘바사삭은 1만9000원에서 2만9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굽네가 제품 가격을 올린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굽네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며 “가맹점 수익 개선 요구를 수용해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버거), 음료, 디저트류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인상했다. 또 배달 제품은 매장 판매가보다 약 5%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코아, 설탕 등 국제 원재료 가격이 뛰면서 가공식품도 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푸드 등 종합식품회사는 과자류와 아이스크림,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그간 가격 인상 요소가 많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미 기자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 선까지 올랐다가 전일보다 10.5원 급등한 1394.50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 모습. [연합뉴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방2 + 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비키리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참패원인 찾자더니... 여당 당선인 총회, 자기소개하다 끝나

총회 2시간 중 1시간 초선 소개에 써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셀카 찍기도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소속 당선인들이 모여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짚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일부 중진을 제외한 대다수가 여의도 국회 본관에 총집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께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세션에서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이 나왔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이 첫 발언자로 나서 “당 재건 과정에서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듣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낙선해 민심을 제대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훈(서울 마포갑) 당선인 등은 잘못에서 교훈을 얻자는 취지의 ‘총선 백서’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종료 후 “낙선자들 모임을 19일쯤 추진하려 한다. 참석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엔 당 상임고문 모임이 열린다. 당선인들은 이날 ▶성찰과 혁신 ▶민생과제 대응 ▶당정 소통 강화 ▶의회 정치 복원 ▶통합과 단결 등 5가지 다짐을 담은 540자 분량 결의문을 냈다.

이날 총회는 당 지도부 공백 속에서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는 긴급

대책회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총회는 새 내기 당선인 자기소개에 절반가량이 할애됐고, 자유토론에선 100여명의 참석자 중 8명만 공개 발언을 했다. 참석자 일부는 일정을 이유로 중간에 회의장을 뒀다. 당선인들끼리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포옹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였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이런 거면 왜 모였나”라고 했다. 재선의 배현진(서울 송파을) 당선인은 “오늘은 첫날이라 구체적 말들을 안 했다. 축하해야 되는 자리”라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관련해선 당장은 ‘실무형 비대위’를 세우기로 결연이 났다. 이르면 6월, 2년 임기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 비대위가 당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4번째 여당 비대위다. 윤 권한대행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를 빨리 출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

였다.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미정이지만 윤 권한대행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공식이 되는 원내대표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경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여당 사상 이런 식의 참패를 본 적이 없다”며 “전당대회로 가는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에 플러스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내부 자성과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 건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5선의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여성 당선인 10여 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한 참석자는 “여성 당선인끼리 단합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심재록·전민구 기자

이준석 “여야 80년대생 모임 추진, 전위대 정치 바꿀 것”

화제의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4·10 총선 최고의 화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기 화성을 역전승이다. 야권 지지층이 두터운 곳인 데다 거대 양당과의 3자 구도였고, 선거 초반 절대적 약세였다. 201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26세의 나이로 합류해 정치에 입문한 뒤 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 만에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다.

지난 15일 국회 본청 개혁신당 회의실에서 만난 그에게선 사력을 다한 선거의 후유증이 보였다. 쉼 목소리가 계속 갈라져 물부터 찾았고, 1시간여 인터뷰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잠시 휴식을 청한 뒤 에너지 드링크를 벌컥벌컥 비운 뒤에야 다시 인터뷰에 임했다.

이 대표는 “제가 싸가지 않고, 동네에서 막말하고 다니고,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이었다면 어느 지역구에서도 10%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여권이) 이준석을 괴물처럼 만들어놨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만나 보니 굉장히 잘하더라’며 오히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가까이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이 제 당선에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

2021년 6월 이준석 신드롬 속에 ‘0선

30대 대표’가 됐던 그는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친윤 주류와 극한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쫓겨났고, 결국 지난해 12월 탈당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며 “가만히 놔두면 독을 막지 못할 것이고,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미 늦었지만, 대통령이 개헌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도 나쁘지 않지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 정당’ 개혁신당의 성과(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에 대해 그는 “온라인 당원 중심의 저비용 구조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당선시킨 유일한 정당”이라며 “젊은 세대가 몰려 있는 화성에서 세대 기반 정당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내가 여성혐오자였다면 표 10%도 못 받아”

개혁신당은 범(汎)야권에 속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는 태생부터 다르다. 당의 정체성을 묻자 그는 “보수·진보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싶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보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수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열린 ‘출마자 격려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세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수적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답한다면 저도 보수적 자유주의자”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어떤 입장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조사가 적절하다. 명품백 의혹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식 종합 특검은 한 사람을 털기 위한 반(反)헌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 처리를 예고했다.

리 본인은 윤 대통령과 다르다고 해도 누가 믿겠나.”

이번 총선에선 이 대표를 포함해 80년대생 당선인은 총 15명(지역구 기준)이다. 지난 총선의 6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80년대생이 22대 국회에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주목하나.

“민주당에는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김재섭(서울 도봉갑)-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이 있다. 젊은 정치인이 민주당 ‘처럼’처럼 전위부대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80년대생 여야 당선인 모임을 구성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정치인 이준석의 최대 라이벌은.

“우리 당의 천하람(비례) 당선인이야. 야심이 크다. 훨씬 더 성장할 거다. 우리 세대는 자기들끼리 희한한 경쟁을 하다가 대선후보도 못 내고 끝난 586과는 다를 것이다.”

다음 대선엔 출마하나.

“국내 정치나 정치의 기술 등은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외교·안보 분야는 큰 틀에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외교·안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가와 국민에 상당히 미안한 상황이 올 것 같다. 물론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라고 준비가 됐잖나.”

허진·김효성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환자·가족 상처도 보라

현장에서

격무 시달린 상처는 이해하지만 의사 이탈로 일반직군 휴직·퇴직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가시 돌친 말들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지난 15일 상처의 가해자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다. “박 차관 경질 없인 복귀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정 공직자를 경질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엔 민감하게 된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 사태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을 풀어달라’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이탈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 로비에서 한 시민이 쓰러지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뉴스1]

취약한 민낯을 보여줬다. 일부 병원은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그 대상은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 입은 상처는 어떨까.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은 천추의 한을 품게 됐다. 충남 보은에서 물에 빠진 33개월 아이는 지역 병원에서 이송할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고, 부산의 50대 남성은 대동맥바리 수술을 위해 울산까지 10곳 넘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어차피 살릴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까.

전국대의 교수 비대위 방재승 전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아직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이 만났던 지난 4일, 대전협 비대위는 내부에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

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공지했다. 커뮤니티에는 드러누울 당(躺)에 평평할 평(平), 즉 편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탕핑’이 회자되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글에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항변한다면 무책임한 생각이다. 박 차관의 ‘의세’ 받음 하나에 1만 4000명 전공의가 분노했던 일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편하게 드러눕겠다는 글을 읽은 환자와 그 가족의 기분을 떠올려 봐야 한다.

이제 대화의 시간이다. 전공의들은 탕핑 모드를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법적 조치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공의는 국민의 상처를, 정부는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의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장주영 기자**

일본 “징용 판결 수용 못해”... ‘파트너 한국’ 표현은 부활



일본 2024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뉴스1]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4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한국에 대한 기술이 다소 늘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곱 차례나 회담한 점을 짚으며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서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극히 중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특집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집중 조명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 정상 이 만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첫 등장 이후 7년째 유지됐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리 직함의 고위급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명기했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 실현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박현주 기자

대통령실 이전 공사 부패 의혹... 감사원, 경호처 간부 수사 의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수의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원대 이상의 국고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의 허위 견적서 제출을 눈감아준 정황과 금품 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방탄유리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대기 발령돼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다. 감사원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감사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등은 제외하고 대통령실과 관련 이전의 결정 과정 및 건축 공사의 부패행위 등을 감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사실상 첫 번째 주요 감사다.

감사원은 공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사 발주 내용과 실제 공사 이력을 비교하는 등 현장을 조사했고 관련 감사 경험은 풍부한 특별조사국 출신 감사관도 추가로 투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철저히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감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민 기자**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일대가 뿌옇다. 기상청은 오늘(17일) 전국이 맑겠고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Return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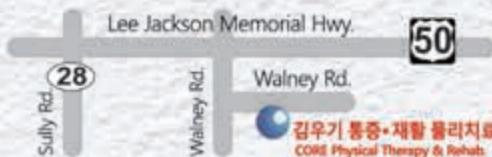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헛갈리는 '되레'와 '외레'

분명 화낼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당사자가 팔짝 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잘못은 내가 해 놓고 되레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잘못한 놈이 외레 큰소리아!” 등과 같이 말하게 된다.

이처럼 예상·기대와 다르게 되는 경우 ‘되레’나 ‘외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도와주려고 한 일이 되레 폐만 끼쳤다” “자기가 잘못하고선 외레 큰소리친다” 등 처럼 ‘되레’ 대신 ‘되려’, ‘외레’ 대신 ‘외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각각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우선 ‘되레’는 ‘도리어’의 준말이다. ‘도리어’가 줄어들면 ‘되려’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되레’가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외려’도 ‘외레’가 맞는 말일까? 이 경우에는 반대다. ‘오히려’의 준말로 ‘외레’가 쓰이기도 하지만 ‘외려’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경우이지만 모양이 다른 ‘되레’와 ‘외려’가 각각 표준어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같은 구조의 ‘되레’와 ‘외레’, ‘되려’와 ‘외려’로 짝을 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헛갈릴 수밖에 없다. 즉 ‘되레’가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외려’ 역시 ‘외레’가 아닌까 생각하기 쉽다. ‘도리어’의 ‘어’와 ‘오히려’의 ‘려’가 준말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기억하면 ‘되레’와 ‘외려’로 바르게 쓰는데 도움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장열
LA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가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직전 한인 업체가 겪는 혼란을 보도했다. 한인 업주들은 이 법안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 으레 맥도날드, 인앤아웃 등과 같은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만 해당할 거라고 여겼다. 알고 보니 ‘투고(To-G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업체는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 뒤늦게 법률자문을 구하느라 난리였다.

이 법은 허술하다. 일례로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의 대응을 보면 업주들이 AB1228 때문에 겪는 혼란을 엿볼 수 있다. BBQ 치킨은 전국에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기사 보도 후 이 업체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는 법에 해당하는 BBQ 치킨의 매장 형태가 60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투고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익스프레스’ 매장만 세어 보면 ‘50여개’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매장 형태(카페·치킨&비어)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셀 이유조차 없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일 뿐,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면제 가능 여부는 확인받지 못했다. 이 법은 사실 노동청도 정확한 시행 규정을 모른다. 웹사이트에 개괄적 내용만 소개했을 뿐, BBQ 치킨처럼 저마다 여건이 다른 업체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할 경우 답변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홀든 가주 하원의원(민주)조차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BQ치킨 측은 불안했는지 가맹점주들에게 슬쩍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서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일 터다. 물론 ‘15~20분’도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해졌는지 불분명하다.

노동청으로부터 정확히 면제 확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사가 호안장담했다가 행여 나중에라도 AB1228에 저촉된다면 피해는 오로지 가맹점주의 몫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BBQ치킨 측 고문 변호사는 결국 본지에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BBQ 치킨뿐만 아니다. 주류의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모든 건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AB1228, 묵묵부답

인 노동청, 무작정 서명부터 하고 본 개인 뉴섬 주지사의 성급한 결정 등이 빚어낸 촌극이다.

논란은 여전한데 이 법의 협의 배경이나 자세한 정보 등을 취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전미 서비스노조(SEIU)를 비롯한 법안 협상 관계자들이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협상 당사자 외에는 이 법의 조항들이 어떠한 근거로 작성됐고 시행되는지 알 수 없다.

여과는 크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4~5달러 인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단숨에 3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업주들은 벌써 직원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법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최저 시급이 ‘20달러’가 안 되는 곳에서 일할 바엔 패스트푸드 업체로 이직하는 게 유리한데, 정작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무인화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도 억울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AB1228을 빌미로 너도나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가주는 현재 전국에서 실업률(5.3%)이 가장 높은 주다. 게다가 일자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AB1228의 취지는 좋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단,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다. 어설픈 법 시행 때문에 곳곳은 난리 통이다.

J네트워크

록펠러센터와 US스틸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1989년 10월 31일 뉴욕타임스 1면에 ‘일본인, 뉴욕의 상징을 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맨해튼 한복판의 록펠러센터를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사들였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역사기념물로도 지정된 이 건물의 매각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입주해 있던 GE와 NBC 방송 등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한순간에 일본의 세입자가 된 접마져 못마땅해했다. 소니가 컬럼비아 영화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반일감정으로까지 번졌다.

지금도 할리우드 영화의 빌런(악당)이 대부분 러시아인, 중국인이지만 당시엔 일본인 재벌이나 야쿠자였다. 의회에서 일본 자본의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0일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스틸은 1901년 ‘철강

왕’ 앤드루 카네기의 카네기스틸과 합병해 세워졌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조는 차라리 미국 회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새 주인이 되길 바랐지만, 반독점법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 세기 이상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이던 US스틸을 미국 회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보면 지난 30여 년간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라면서 경제 논리와는 안 맞는 이유로 여전히 거래가 막혔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난주 만난 한 전직 미국 관료는 록펠러센터 매입 때와 지금의 일본은, 미국에 전혀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 바이든도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표를 의식해 그런 것이지, 연말 이후 US스틸 합병 작업은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봤다.

게다가 일본이 미·영·호주의 군사 동맹인 ‘오키스’ 협력국이 된 마당에 안보를 핑계로 보호주의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 실제 정상회담 직후, US스틸은 주주총회를 열고 일본제철과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가 남았지만, 동맹국과의 거래를 막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별써 일본은 이런 지위를 백분 활용하는 모습이다. 얼마 전 미국 향량의 중국산 크레인을 모두 교체하기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간 것도 일본 미쓰이였다. 30여 년 전 ‘엔화를 앞세운 침략자’였던 일본은, 이제 중국이란 더 큰 빌런에 함께 맞서는 동맹군으로 미국 시장에 다시 스며들고 있다.

BED BUG

민대퇴사!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skpmva@gmail.com

571-992-5789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이 당에도 산화하는 사람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8.62%.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 동·남구에 출마한 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의 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70.16%), 무소속 김성환(16.15%) 후보에 이어 3등에 그쳤다. 세브란스 병원 내과 의사였던 그는 비례대표를 주겠다는 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패배가 뻔한 고향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동·남구는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문종식 후보가 한자리 득표율로 낙선한 데 이어 2020년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포기한 불모지 중 불모지다.

- ‘달갈로 바위 치기’였던 건가요.
“부족한 제가 두 달 만에 고향 광주의 마음을 얻으려 했는데,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5%는 넘겨 동생뻘 청년들이 보수 후보로 광주에 도전할 자신감을 주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상대 당에 표 안 주기는 영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30%, 부산·경남에선 40% 표가 나와요. 부산·울산·경남에서 5석 얻었잖아요. 여기처럼 9대 1 구도면 정치가 존재하기 힘들겁니다.”

- 선거운동, 어떻게 했나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습니다. 출퇴근 인사하고, 경로당 찾아다니며 ‘40년간 민주당만 찍어 좋아진 게 뭐 있나. 인구(142만)마저 대전(144만)보다 줄어 광역시 타이틀을 뺏길 판이다. 여당 찍어야 예산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윤석열 풀 보기 싫다’는 말만 하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됐어. 그래도 민주당이야’ 하세요. 사전 투표 때도 힘들었어요. ‘난 민주당 찍고 왔어’ 하시니 기운 빠지죠. 여기 민주당 후보들은 공천되면 휴가 간다고 해요. 경선 끝나면 선거 끝난 거예요.”

- 대통령 욕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국회 가서 대통령에 할 말 할 테니 찍어달라고 했죠 (웃음). 저도 솔직히 의·정 갈등 못 푸는 것 보면서 (대통령에) 약간 실망했어요. 또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요. 몰가도 그래요. 국민도 정부 탓만은 아닌 걸 아는데 굳이 ‘대과’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고요.”

첫 여론조사 5% 지지율에 경악
-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명함 받으면 내던지고 찢거나, 침 뱉고 ‘비켜’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손 꼽을 정도였죠. 정말 힘들었던 건 지지율이 5%로 나온 첫 여론조사 때였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편 들어준 사람은 없나요?) 하루 많으면 7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해. 찍어줄게’ 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 당 전략의 문제점은 뭐였나요.
“선거는 바람이잖아요. 언론의 주목을 받는 후보가 저 외에 광주, 전남·북에서 5명씩은 있어야 했어요. 그나마 ‘한동훈 바람’을 기대했는데, 불뻔하다 꺼져버렸고... 어젠다도 실종됐어요. 586 청산? 이제명이 알아서 청산했잖아요. 민생? 대통령이 대과 흔드는 순간 종쳤죠. 이명박 정부 때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점퍼 차림으로 유세 도중 인터뷰에 응한 박은식 전 후보. 그는 “등 뒤의 건물 벽처럼 견고한 호남 정서를 넘지 못했지만, 여당에도 대의를 위해 산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택한 길인 만큼 후회는 없다”고 했다. 광주=강찬호 기자

‘총선서 보수 지면 망국’ 위기감에 고향 출사표 결심
보수 후보들 길 열어주려 강남·비례 출마 제안 거절
호남서도 여당 존재감 키워야... 5·18 때도 이제 그만
지역 유권자도 보수에 최소한의 관심 보여주셨으면...

‘뉴타운’처럼 보수 가치에 충실한 카드 하나만 던졌더라도 좋았을 텐데...”

- 낙선하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여당 비대위원이 꽃길 마다하고 왔는데 너무하다 ‘여기는 여당의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들 하시더군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광주에선 ‘아 권이 대통령 탄핵선(200석) 언지 못해 아깝다’는 분위기에요. 막판에 영남이 국민의힘으로 결집한 건 호남에서 이정현·정운천조차 안 되니까 ‘우리도 여당으로 뭉치자’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 같습니다.”

“한나라당 호칭 여전, 여당 존재감 0”
- 여당도 5·18 참배 등 제스처를 하지만,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받지 않나요.
“국민의힘도 잘해야겠지만, 광주 유권자들도 생각을 바꿨으면 합니다. 5·18을 기념일로 지정한 대통령은 김영삼이었잖아요.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고요. 집권당을 활용해야지, 배척만 하면 계속 고립되죠. 선거 해보니 대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뛰어봤자 ‘윤석열 싫어! 꺼져’ 하면 끝이에요. 명함 드리면 ‘왜 빨간 당으로 나왔냐’고 하세요. 당명도 기억 못 해요. 국민의당, 심지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 잇을 만나면 5·18 망명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요.

“5·18 때 광주 시민은 ‘북괴는 오관 말라’는 플래카드를 걸었고, 미국의 개입을 바라는 등 헌정 수호·친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고 ‘폭도’라 매도하니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지속되니 호남이 여당에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힘들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이 국민의힘 아닌 조국 신당으로 가 버렸어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개혁당 찍은 비율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답답합니다.”

- 광주 출마에 가족들 반응은.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가족들 반대가 심했죠. 당에서 ‘비례 의원 아니면 텃밭(강남) 공천해 주겠다’라고도 했지만, 그것도 거부하고 ‘정치하게 된다면 광주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직을 제안했는데, 이 건 가족들도 동의해줬어요. 보수진영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때 광주 출마 결심을 굳혔죠.”

- 꽃길을 거부하고 험지 출마를 결단한 이유는.
“누군가는 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여당 사람들이 자각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죠. 이 당은 호남 출신들이 고향 대신 양지만 찾아 출마하잖아요. 그러다 낙선에 명분도 살리고 잃고... 호

남 출신으로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비대위원 말는 순간 내 소명은 광주 출마라고 확신했습니다. ‘박은식이 비대위원 되더니 결국 비례 공천받더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았죠. 내가 광주에 출마하면 여당의 수도권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어요.”

- 의사로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향길을 택한 심적 배경은 뭔가요.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사회과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수의 가치에 확신을 갖게 됐고, 한국은 해양세력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지, 중국에 굴종하던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한 거죠.”

- 망국을 걱정할 만큼 절박했나요.
“과거 민주당은 그래도 한정사는 존중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나라에 애착심 자체가 없다고 봤어요. 나라에서 꿀 빨 거 다 빨고, 아이들 미국 유학 보내면서 사상은 사회주의·친북·친중이니,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권력 잡으면 대륙에 종속됐던 조선 시대로 퇴행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광주 출마로 이어진 거죠.”

“박정희 덕에 기생충 소멸” 듣고 보수로
- 성장사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무안 출신 대학 강사, 어머니는 화순 출신 교사로 광주에서 사셨어요. 저도 초중고를 광주에서 나왔고요. 유복하진 못했지만 단란한 환경이었죠. 처가는 대구인데, 장인어른이 자식들과 5·18 묘지를 참배했을 만큼 열린 분입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그냥 민주당이었죠. 한때 의대 입학해 기생충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박정희가 기생충 다 없애 우리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오물이 그대로 들어간 우물물 먹고 너도나도 기생충에 감염됐잖아요. 이거 막으려면 하수도 깔아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의 배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자재를 마련하고 하수도를 만들게 하니까 기생충 유행이 확 떨어진 겁니다. 그때 처음 박정희의 긍정적인 면모를 깨달았어요. 또 의사가 돼보니까, 누군가 일을 해 가치를 창출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최전방에서 군의관 복무하며 북한군의 현실을 목도하고, 보수 이념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확신을 얻었습니다.”

- 보수 논객이 된 건 조국 사태가 전환점인가요?
“제 전문 분야잖아요. 조민 씨가 썼다는 의학 논문은 레지던트도 못 써요. 교수가 박사 조교들 데리고 피 땀과, 동의서 얻고, 기계 돌려야 겨우 쓸 수 있어요. 그런 논문을 고교생이 썼다니 진짜 분노했죠. 그런데도 문제없다고 넘어가는 민주당 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후원금이 1억5000만원 들어와 큰 손해는 면했습니다. (거저는?) 일단 일상으로 돌아갈래요. 가정을 건사해야죠(웃음).”

강찬호 논설위원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 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시 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 운영의 변화 요구가 쇄도하는 시점이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이 정권을 떠난 이유와 관련,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런 건 지역적인 얘기일

총선 참패 후 첫 발언 지역적 문제에 천착 본인의 일방통행 스타일·태도를 성찰할 때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의 쓰나미가 여당을 덮친 것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 본인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결정적 요인이다. 총선의 분수령이 된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파동에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대사를 무리하게 출국시켜 민심을 자극한 장면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김기현 대표 내려쫓기, 문답의 기자회견 기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서 시종일관 밀어붙이는 모습만 보여줘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책보다는 정치가, 스타일과 태도가 문제

였다.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3년 임기가 매우 불행해진다는 게 이번 총선의 민의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그나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니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거대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것도 아쉽다. 윤 대통령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총선 참패 후 첫 공개 발언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분명하고 전향적인 협치 메시지가 나와야 했다. 22대 국회에선 여야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새 총리 임명도 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

자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22대 국회 개원 전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의로계 파업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젠 레토릭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부터 행동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이번 총선을 전후로 검찰의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다단계 수사 분야 1급(블랙벨트)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이후 부부 신고 재산이 41억원 증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서다. 이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이다. 이 변호사처럼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분야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만연한 사실이 중앙일보 취재로 드러났다.

성범죄 분야의 2급(블루벨트) 출신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범죄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줬다니 말문이 막힌다. 관세 블루벨트 변호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159kg(약 72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는 또 어떤가. 검찰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쌓아 올린 수사 노하우를 밖으로 들고 나가 거꾸로 범죄 조식을 위해 활용한다면 심각한 수사 방해가 아닐 수 없다. 전관 출신이 전문성 벨트까지 갖으니 거액의 대가를 받는 건 상식이다.

박은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남편의 고액 수입 논란에 대해 “(수입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의 통상 수수료가 한 건당 1억원이라고 밝힌 셈이다. 박 당선인도 검사 출신이니 허튼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전관예우의 관행은 범주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15일엔 금융감독원 국장이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파트 안전 문제가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LH 전관 출신들의 카르텔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에서 만든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오히려 전관의 관행을 악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1년간 배출한 289명 중 78명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이었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 금지 제도를 비껴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간부)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전관예우 악습에 황금 벨트까지 덩으로 채워지는 결과로 변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적으로 공인전문검사 출신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배운 기법을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기엔 범주계 전관예우의 뿌리는 너무 깊다. 대검은 공인전문검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세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대비를 소홀히 하면 공인전문검사 벨트는 공인 전관예우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여야 협치는 몽상인가

이상언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1 저녁 퇴근시간 기쿠요마치(菊陽町) 하라미즈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릴 정도로 한산했던 곳이다. 구마모토역 방향으로 가는 기차(신칸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도쿄일렉트론 등의 직원이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넣은 투명한 백팩을 멘 승객도 보인다.

#2 기쿠요마치 자치단체 사무실 직원들이 반도체 공장이나 이와 관련된 부품·장비 업체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는 전화를 열심히 돌린다. 기쿠요마치에 세워진 TSMC 반도체 공장에 약 400명의 근로자가 대만에서 파견됐다. 그들은 이 지역 다른 제조업체 근로자보다 약 30% 많은 보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곳의 다른 업체에서도 임금 오르기 시작했다.

#3 구마모토현의 다다미가 깔린 연회장. 출장 온 대만 TSMC 임직원들과 지역 상공회의소 간부들이 티셔츠와 일회용품 등의 기념품을 주고받기에 바쁘다. 스시 접시 옆으로 기린 맥주와 일본 청주가 담긴 잔이 놓인다. 건배사가 울려 퍼진다. “우리가 벌어들일 돈을 위하여(To all the money we’re going to make).”

한국에서 총선이 치러진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1면과 8면에 실린 기사의 현장 묘사 부분이다. 기사 제목은 ‘옛 반도체 챔피언이 다시 링에 오르다(Old chip champ re-enters ring)’. 두 달 전에 가동이 시작된 TSMC 기쿠요마치 공장에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내용이다. “TSMC 공장 주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인다. 화학 소재 제조업체와 장비 제조사가 반도체 경제 덕을 보려고 열띤 경쟁을 벌인다. 소니·덴소·도요타 등의 반도체 의존 기업들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규모 투자로 호응한다”고 전한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을 짓는 데 4760억 엔(약 4조2000억원)을 썼다. 직접 지원(보조금)이다. 현재 TSMC 두 번째 공

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는 일본 정부가 7320억 엔을 내기로 했다. 기쿠요마치 TSMC 합작 1호 공장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은 2021년 6월이다. 이듬해 4월에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2월 초에 부분 가동에 돌입했다. 완전 가동 시점은 올해 말로 계획돼 있다. 한국만큼이나 인허가 행정 절차가 까다로운 일본에서 이례적인 속도다. 정부가 앞에서 일사천리로 걸림돌을 치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돈을 모아 세운 반도체 회사 ‘래피더스’는 훗카이도에 공장을 짓는다. 라틴어 ‘라피두스’는 신속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하던 ‘빨리빨리’를 일본이 외친다.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81쪽 큰 글씨 제목이다. 아래에는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이

TSMC 들어선 구마모토현 활기 한국의 클러스터 조성은 제자리 초당적, 거국적 지원 조직 필요

적혀 있다. 시설투자 세액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이 세부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은 비경제경제민생회의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집권이 2년이 다 돼 간다. 뭐가 됐다는 얘기는 없고, 아직도 “하겠”은 말뿐이다. 전기·용수 공급 방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오롯이 대통령 책임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헤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야당 측도 함께하는 ‘거국적(초당적) 반도체 지원 조직’ 창설을 제안한다. 우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반도체산업 정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순 없다. 부부가 싸워도 아이들 공부 시켜야 한다. 형제 간 다툼으로 집이 엉망이 됐어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예전 챔피언이 장갑을 끼고 링에 올랐다고 하지 않는가.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기자재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April 17,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덱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힘줄 자르지 않는 인공관절 수술, 5일이면 걸어서 퇴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릎 관절염과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무릎 관절염은 통증도 심할 뿐더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고관절은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되면 계속 누워서 지내야 하고, 이는 패혈증·폐렴·심부전 등 내과적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르신이 고관절을 다치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무릎과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부착하는 수술이 크게 늘고 있다. 수술 과정이 간단해지고 비용이 저렴해진 것도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다.

수술·재활·퇴원 앞당기는 '1·4·5 수술법'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웰튼병원을 운영하는 송상호 원장은 2003년부터 20년 넘게 이 분야만 파고든 전문가다. 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6000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도 6000회를 넘게 집도했다.

웰튼병원은 자신들의 독특한 '1·4·5 수술법'을 자랑한다. 수술하는 데 1시간 걸리고, 수술 4시간 후에 걷는 연습을 하고, 수술 5일 뒤에 목발이나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 없이 걸어서 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장을 만나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송 원장한테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재활과 퇴원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힘줄을 자르지 않는 것'에 있다. 고관절을 받치고 있는 엉덩이 근육 중에는 '이상근(梨狀筋)'이라는 게 있는데, 인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코어 근육이다. 골프 스윙 때 발이 땅



서울 마곡동 웰튼병원 송상호 원장이 고관절과 무릎관절 모형을 보여주며 인공관절 수술 과정과 회복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웰튼병원 송상호 원장의 조언

20년간 인공관절만 1만2000회 수술 힘줄 남겨 근육 기능 온전히 유지 수술에 1시간, 4시간 지나 걷기 연습 사이클 훈련, 무릎 부담 덜해 큰 효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주의할 점

- 구부러지는 각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인공관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인다.
-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동작은 피한다. (쓰러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계단이나 경사진 곳 내려가기 등)
- 자전거 등 상체 하중을 덜 받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중을 줄인다.

을 디디면서 '지면 반발력'을 받는데 이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이다.

이상근에는 4개의 힘줄이 딱 달라붙어 있다. 일반적인 수술법은 이상근에 붙은 힘줄을 잘라내고 관절막이 보이면 관절을 열고 인공관절을 심고 난 다음에 끊었던 힘줄을 다시 연결시킨다. 그런데 송 원장은 보조기구를 활용해 힘줄을 잡아당긴 뒤 확보한 시야를 통해 인공관절을 장착한다.

송 원장은 "힘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 이상근의 기능도 유지되기 때문에 고관절에서 다리뼈가 빠져나가는 탈구를 막을 수 있다. 또 봉합한 힘줄은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면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 재활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힘줄을 살려놓으면

이처럼 부작용 걱정 없이 재활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웰튼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재활에 '와트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사이클이 취미인 송 원장이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만난 국가대표 출신 육지영 대표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실제 사이클보다 훈련하기가 편하고 초당 1000회가 넘는 측정으로 정확한 재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웰튼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이틀째부터 한 달 동안 물리치료사의 맞춤 코칭을 받으며 와트바이크를 이용한 관절재활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정영재 기자

▶ 4면 '힘줄'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의·과학 임상 연구로 맞춤형 안티에이징, 메디컬 에스테틱 혁신 이끈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메디컬 에스테틱이 대중화되면서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주관적 아름다움이 중요해지고 있다. 나다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 의·과학적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안티에이징 접근이 중요해지는 배경이다. 메디컬 에스테틱 강국인 한국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피부 특성, 나이,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한 임상적 효과를 강조한다.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는 피부에 비침습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메디컬 에스테틱 연구개발(R&D)을 선도한다.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좋게 느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자(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는 멀츠의 미션에 담긴 의미다. 국내에서 멀츠는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느끼도록 돕는 컨피던스 투 비(Confidence To Be) 캠페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뷰티풀 프라미스(Beautiful Promise)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유수연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대표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다양한 ESG 활동으로 확립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비침습적, 즉각적 시술로 만족도 높여

멀츠의 핵심 역량은 독보적인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R&D 전문성이다. 의료 소비자가 당당하게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메디컬 에스테틱 측면에서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제품화한다. 멀츠의 메디컬 에스테틱 R&D 철학은 창업자인 프리드리히 멀츠 박사의 신념에서 시작됐다. 그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서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R&D



멀츠 에스테틱스 R&D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피부 노화와 관련된 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로 연결해 제품화한다.

멀츠는 현재 30여 건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제품의 새로운 활용법을 찾는 데 집중한다. 히알루론산 필러 브랜드인 벨로테로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는 눈 밑 꺼짐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 보툴리눔 독신인 제오민은 상부 안면 주름에 대한 중추 임상 연구를 완료한 상태다. 바이오스틸물레이티인 CaHA 제제의 레디어스는 안면부뿐 아니라 목·어깨 부분까지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CaHA 제제는 피부 속 콜라겐-엘라스틴 등 세포 외 기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노화로 인해 만들어진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들 R&D 프로젝트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트렌드인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기미·주근깨 등 색소 침착이나 미간·눈가 등 얼굴 표정 주름, 피부 건조, 여드름 흉터 등 개인마다 미묘하게 다른 피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만족도 높은 결과(Outcomes)를 유도한다.

멀츠는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으로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초음파 리프팅 기기인 울쎄라, 내성 걱정을 없앤 보툴리눔

독신 제품인 제오민, 피부 밀착력을 높여 볼륨감을 채워 주는 히알루론산 필러 벨로테로, 피부 세포의 생물학적 치유를 유도하는 CaHA 제제인 레디어스 등 멀츠의 주요 제품은 임상 현장에서 탄탄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다수의 임상 연구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등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했다. 실제 멀츠는 1908년 설립된 이후 116년 동안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를 연구했다.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은 R&D에 투자하면서 지식 기반형 원천 기술의 과학적 자산화에 집중한다. 멀츠가 피부 과학 분야 R&D에 진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글로벌 학술대회를 통한 제품의 과학적 검증에도 적극적이다. 멀츠는 전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메디컬 에스테틱 학술대회인 MEXXS를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최신 시술 트렌드는 물론 제품 활용법, 임상 현장에서의 데이터, 시술 프로토콜 정립 등을 논의·토론한다.

생물학적 치유로 재생 에스테틱 선도

R&D를 통한 메디컬 에스테틱 혁신을 추구하는 멀츠의 가치는 제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멀

츠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인 제오민은 고도의 정제 기술로 복합단백질 등을 제거한 순수 독신으로만 이뤄져 있어 내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경을 마비시켜 미세 주름을 펴주는 보툴리눔 독신은 제품에 따라 내성 발생률에 차이를 보인다. 반복적 시술이 필요한 보툴리눔 독신에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제오민은 특히 안정성이 높아 상온 보관도 가능하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활용한 DeepSEE 기술이 적용된 울쎄라는 보이는 초음파 리프팅 치료로 정교하게 표적을 타기팅해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도를 높인다. 시각화된 마이크로포커스 초음파를 사용해 비침습적 방법으로 피부 속 조직층을 확인하면서 개인별 피부 상태에 따른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 얼굴 전체에 시술하면 피부 결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열리고 여드름 등 흉터 자국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울쎄라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한국 등 동양인에게 시술 효과가 좋다.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인 벨로테로에는 멀츠의 독자적인 다밀도 입자 공법을 적용해 피부 밀착력을 높였다. 응집력이 높아 울퉁불퉁한 이물감이 적으면서 강력한 볼륨마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벨로테로는 입자의 크기, 단단한 정도 등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루는 물성학적 균형이 우수하다. 필러가 피부에 퍼져나가 자연스럽게 조형이 가능하다.

CaHA 제제인 레디어스는 재생 에스테틱(Regenerative aesthetics) 분야에서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생체 적합성이 높은 레디어스는 콜라겐-엘라스틴 등 피부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여주는 기전을 가졌다.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치유를 시도해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피부 톤·결 등을 개선한다. 임상 연구를 통해 CaHA 제제가 콜라겐 합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섬유아세포에 직접 작용해 만성 염증 없이 피부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권선미 기자

인터뷰 사만다 커 멀츠 에스테틱스 최고 과학 책임자

“매년 매출 15% 이상 R&D 투자, 메디컬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확장”

멀츠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강자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도를 추구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 포트폴리오로 초개인화 트렌드를 선도한다. 검증된 제품과 표준화된 시술법으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학술대회(MEXXS)를 매년 진행하기도 한다. 멀츠 에스테틱스 연구개발(R&D) 부서를 이끄는 사만다 커(사진) 최고 과학 책임자(CSO)에게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의·과학 가치를 강조한 멀츠 에스테틱스의 혁신적 연구에 대해 들었다.

-멀츠 에스테틱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피부 재생 등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만 집중하는 R&D 활동이다. 멀츠는 전 세계 거점 지역 3곳에서 220명 이상의 연구원이 메디컬 에스테틱 연구에만 몰두한다. 전체 멀츠 임직원의 10%가 넘는 비율이다. 특히 매년 매출액의 15% 이상을 메디컬 에스테틱 R&D에 투자해 지식 기반형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높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전문성을 가진 멀츠 에스테틱스 R&D팀은 크로스펑셔널(Cross-functional) 조직으로 운영해 현장에

서의 니즈를 경청하고 효율적 연구 프로세스로 제품화하는 역량이 우수하다. 현재 기존 제품의 새로운 적응증 확대를 위한 30여 개의 R&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5년 이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에서의 의·과학적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메디컬 에스테틱은 화장품 등 단순 에스테틱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멀츠의 모든 제품은 의사를 통해 환자에게 시술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이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때 치료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면서 내신 부작용을 없앤 보툴리눔 독신인 제오민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R&D에 집중하는 이유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MEXXS를 통해 전 세계 의료진과 다양한 의·과학적 시각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있나.
“한국의료진과는 의·과학 근거에 기반한 시술 프로토콜을 논의·검증해 확립하면서 협력한다. 초음파 리프팅 기

기인 울쎄라의 한국형 프로토콜을 제시하기도 했다. 피부가 서양인보다 피부 진피층이 두꺼운 동양인은 초음파 리프팅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시술해야 하고, 최소 600샷은 시도해야 효과가 높다. 한국은 뛰어난 임상 실력으로 기존 제품의 새로운 활용법을 독창적으로 고안하는 아이디어가 우수하다. 한국에서 제시한 메디컬 에스테틱 접근법이 전 세계로 유행처럼 번지는 사례가 많다. 멀츠는 전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R&D 프로젝트에 반영한다.”

권선미 기자



헤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53.3%	42.9%	2.3%	0.0%
매우중증	중증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백
좌골신경통

Sciatica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짐 힘들다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헤민한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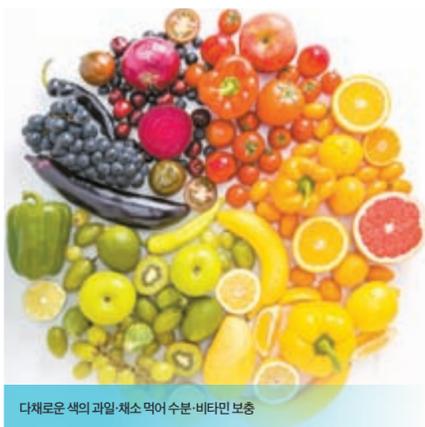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음식 포장할 때 가능하면 다회용 용기 활용



수산물 내장 제거하고 조개류는 충분히 해감



다채로운 색의 과일 채소 먹어 수분·비타민 보충



압축성형이나 화학 물질 가공 덜 된 가구 구매

봄철 느끼는 오염 물질 잘 씻고 청소 꼼꼼히 내 몸, 습관이 지킨다

일상 속 친환경 생활법 요즘 건강을 고려해 환경에 관심을 두는 현대인이 많다.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한 번쯤 미세플라스틱을 걱정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염려한다. 요즘처럼 이사철일 땐 환경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가족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실내 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쓴다.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면 좋은 친환경 생활법을 알아봤다.



김선영 기자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다. 요즘엔 과학의 발달로 마이크로미터(μm)보다 작은 나노미터(n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된다. 보통 미세플라스틱은 5mm~1μm 정도고 나노 플라스틱은 1μm보다 작은 크기를 말한다. 1nm는 1μm의 1000분의 1 크기다. 생활용품 속에 들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는 하수처리장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가 유해 화학물질을 흡수함에 따라 고농축 독성 물질로 변한다. 플라스틱이 이를 먹이로 오인해 먹게 되면 물고기를 거쳐 결국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 쌓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몸속 장기에 붙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물질과 미생물이 합쳐져 몸 안으로 들어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심혈관 독성, 간 손상이 우려된다. 특히 나노 플라스틱은 DNA 크기 정도로 작아 어디든지 침투할 수 있다. 혈관을 통해 폐와 뇌, 태반, 모유, 고환에서도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혈관이 많은 자궁이나 난소 같은 생식기관에 침투해 생식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생성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어디서나 발견되는 상황이다.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 개발이 선행돼야 하지만,

개인별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본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회용 용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 용기보다 2.9~4.5배가량 많았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와 PP(27.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였다. 따라서 포장·배달 이용 시 가능하면 다회용 용기를 쓰고 뜨거운 음료는 텀블러와 머그잔에 담아 마실 것을 권한다.

또한 음식을 담기 전 플라스틱 식기와 조리도구를 깨끗이 세척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는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수도물은 여과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식수로 활용할 땐 물을 끓인 후 침전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신다. 수산물은 가급적 내장을 제거한 뒤 세척해 조리하고 조개류는 소금물로 해감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봄철엔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날아든다. 미세먼지가 기도로 들어가 점막을 자극하면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해지며 기침·가래를 유발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 환자라면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숨 쉴 때 쌉쌉거리는 증상이 악화하곤 한다. 미세먼지는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주목받는다. 특히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에 바로 흡수된다. 어디든 침투해 몸에 쌓이면 염증 반응을 초래한다.

눈에 닿으면 각막에 상처가 나고 먼 구멍과 틈새를 통해 피부에 들어오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다.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뭉쳐져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 심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 요소가 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엔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지면 기관지염·폐렴과 같은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났을 가



하루 물 8잔 마셔 점막 축축이 유지 일회용품 줄여 미세플라스틱 예방 벽, 천장의 오염 물질 수시로 청소



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진료를 받는다. 어린이는 취약군이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호흡기 발육이 미숙하고 기관지의 자정 작용 기능이 떨어진다. 아직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해 내는 방법은 없다.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심한 날엔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한다. 외출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가 높은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팔이나 긴바지, 모자, 선글라스를 활

용한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하고 입었던 옷은 빨거나 털어 보관한다. 목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달라붙기 더 쉬우므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미세먼지는 산화스트레스와 염증 증가를 유발하므로 다채로운 색의 과일·채소를 먹어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하자. 바깥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환기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진다. 짧게나마 주기적으로 자연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이중 관리한다.

이사 철에 유의할 발암 물질

발암 물질은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주로 유전체나 세포 대사에 손상을 입히고 특정 반응을 일으켜 암세포 발생을 유발한다. 1군 발암 물질로는 석면, 비소, 알코올, 벤젠,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암은 현대인의 질병으로 불리는 만큼 발암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해 성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대인은 일과의 90% 이상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만성 감기나 기침, 가래, 두통과 같은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이사를 앞둔 집이라면 더 그렇다. 건축자재·가구·전자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해 발암 물질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라돈과 벤젠, 폼알데하이드는 실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염 물

질로 건축자재나 가구, 단열재, 페인트가 주요 발생원이다. 대개 장기간에 걸쳐 방출되는 만큼 오염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오염 물질 방출이 높은 제품을 낮은 물질로 대체하고 환기를 통해 외부 공기량을 늘려 오염 물질 농도를 낮추는 것이다. 가급적 압축성형을 하지 않은 목재나 철재로 된 가구를 사고 가죽 제품도 화학물질 가공이 덜 된 제품을 고른다. 주택을 리모델링할 땐 되도록 오염 물질 방출률이 낮은 친환경 자재를 쓴다.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토양과 인접한 주택의 바다·벽에 생긴 틈새는 보강재로 막아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라돈을 차단한다.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방출되는 발암성 물질을 줄이려면 외부와 통하는 문은 모두 닫은 채 실내 공기의 온도를 높여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확 늘린 뒤 환기하는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3회 이상 반복해야 방출 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다. 오염 물질은 바닥뿐 아니라 벽면·천장에도 붙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해 실내에 정체된 공기를 실외로 빼내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 오염 물질을 희석한다. 자연 환기는 오전 10시~오후 9시 사이 하루 3번 30분 이상 하고 기계식 환기의 경우 흡입구·배출구가 빗물 또는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하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떨림 현상 반복 안면경련증, 뇌 신경 이상 의심... 미세혈관감압술 효과적”

인터뷰 장진우 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안면 경련은 단순한 떨림 증상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뇌 신경 질환이다. 혈관 신경 압박으로 떨림이 생긴 거라면 치료법은 명확하다. 혈관과 신경을 분리하면 된다. 이 치료는 신경외과 수술의 한 분야인 정위(定位)기능수술에 해당한다. 3차원 좌표 원리를 이용해 뇌의 이상 부위를 찾아 수술하고 뇌 기능을 복원하는 식이다. 지난달부터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신경외과 장진우(사진) 교수는 정위기능 신경외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힌다. 30년간 수많은 안면 경련 환자가 장 교수에게 치료받고 일상을 회복했다. 장 교수를 만나 안면 경련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봤다.

신영경 기자

-안면 경련은 왜 생기나.

“유발 요인은 다양하다. 대부분 뇌혈관이 신경을 눌러 증상이 나타난다. 안면신경인 제7번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떨림이 발생하는 경우다. 안면 경련은 얼굴에 반복적인 근육 운동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떨림은 눈 주위뿐 아니라 입과 목 부위까지 퍼질 수 있다. 얼굴 한쪽에만 나타나는 반측성 안면 경련이 가장 흔하고, 안면 마비 후 이차적인 경련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다.

“눈 주위 떨림이 생기면 대다수가 마그네슘 부족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결핍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는 드물다. 대부분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고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떨림이 악화한다. 이럴 땐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금세 사라진다. 문제는 떨림이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다. 눈꺼풀에서 시작된 떨림이 몇 달씩 이어져 얼굴의 다른 부위로까지 퍼진다면 뇌 신경 이상에 의한 안면 경련을 의심해야 한다.”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나.

“치료법은 크게 약물요법과 보톡스 주사요법, 미세혈관감압술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엔 주로 약물치료나 주사요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증상이 조절되면 굳이 수술적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들 치료법은 근본적인 치료법과는 거리가 멀다.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안면 경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미세혈관감압술’이 유일하다.”

-미세혈관감압술의 치료 원리는 뭔가.

“뇌혈관 압박에 의한 뇌 신경 이상을 수술로 치료하는 원리다. 귀 뒤쪽을 약 4~5cm 절개한 뒤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분리한다. 이후 혈관과 신경 사이에 충격을 완화하는 스펀지(완충재)를 넣어 신경 자극을 차단하는 식이다.”



장진우 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 문화가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정위기능 신경외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가.

“미세혈관감압술의 성공률은 93% 정도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수술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할 때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수술법을 이용하면 청력 손실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뇌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뇌 수술인 만큼 환자 입장에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막연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환자 스스로 삶의 중요도를 파악한 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치료법을 결정하면 안면 경련을 확실치 치료할 수 있다.”

-30년간 뇌 수술 환자 데이터를 쌓아온 것으로 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7000차례 이상의 뇌 수술을 진행했다. 안면 경련 등 뇌 신경 기능 이상에 대한 미세혈관감압술과 고주파열응고수술만 해도 3000차례 이상을 시행했다. 정위기능 신경외과는 생명 유지와 직결된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치료 접근법이 다르다. 환자의 개념보다는 증상 완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경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안경을 쓴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듯 삶의 보조

적 역할을 하는 영역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더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한 뒤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수라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 공헌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환자를 많이 보는 게 끝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산업 발전을 이끌고 꾸준히 새로운 수술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정위기능 신경외과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여러 진료과 전문의와 다양한 환자 사례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협진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1번 ‘힘줄’에서 이어집니다

송 원장은 “고관절 환자들은 아픈 쪽 다리가 짧아져서 다리를 절게 되고, 아프니까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주변 근육들이 약해져 다리를 더 절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사이클은 상체의 무게를 안정이 받쳐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준다. 자전거 전용 신발은 페달에 딱 끼기 때문에 다리를 눌러

서만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뒤로 당기는 움직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리 앞뒤 근육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릎 접히는 각도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송 원장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팁도 알려줬다. 첫째, 무릎의 경우 접히는 각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좌식 문화가 있어서 잘 구

부러지는 것이 수술 잘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공관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영국·미국에서는 구부리는 운동을 잘 안 한다고 한다. 90도에서 100도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내려가는 것 등이 인공관절에 큰 부담을 줘서 빨리 닳게 만든다.

그렇다면 평소에도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달리기·등산 등 운동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송 원장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통해 체중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며 “역시 제일 좋은 게 자전거라고 본다. 나도 3년째 자전거를 타면서 체중이 줄고, 힘들던 산행도 거뜰하게 해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이 무릎 보호를 위해 권하는 운동이 하나 더 있다. 삼각형 모양

기구를 발 뒤에 놓고 스트레칭을 해 무릎을 쪽쪽 피지게 하는 자세다. 오(0)다리 모양을 교정해 무릎 안과 밖에 체중이 반반씩 실리게 도와주는 원리다.

송 원장은 “무릎은 워낙 훌륭한 의사들이 많지만 고관절은 숙제가 많다.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수술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수술법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고 희망을 전했다.

정영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건강함 치아는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무보영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한방 칼럼

치매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조치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을 괴롭힌다.

그렇다고 치매를 염려만 하고 지낼 것인가? 미리 알아두고 조치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인지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치매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서 상식을 넓혀서 지식을 축적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지 또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치매는 기억력 손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감정을 느끼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뇌의 기능을 뇌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뇌세포를 도와주는 아교세포가 있다. 끈적거리는 아교처럼 접착제와 같은 세포를 아교세포라고 한다.

뇌세포의 수가 약 1천억 개라면, 아교세포는 1조개 정도로 10배 정도 많다. 뇌세포는 각각의 세포에 수백-수만 개의 가지를 내서 다른 뇌세포의 가지와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데, 이 가지는 전기가 흐른다.

한쪽 가지의 끝에서 다른 가지의 끝과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부위를 시냅스(synapse)라고 한다. 가지에 전기가 흐르는데, 슈반세포(Schwann cell)라는 절연체가 감싸서 누전되지 않게 한다.

치매 예방 (1)



권진열
해민한의원 원장

스(synapse)라고 한다. 가지에 전기가 흐르는데, 슈반세포(Schwann cell)라는 절연체가 감싸서 누전되지 않게 한다.

전기가 누전되면 화재가 일어날 위

험이 생기는데, 뇌세포도 마찬가지이다. 누전되어 발생되면 간질(뇌전증: epilepsy)이나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파킨슨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누전이 되면 두뇌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뇌세포 밖의 아밀로이드 단백질(Amyloid plaque)과 뇌세포 안의 타우(Tau)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것과 항상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없애서 FDA에 승인된 치매 개선 주사약도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행 속도를 늦추서 10년 만에 중증 치매가 발생할 것을 13년으로 늦추는 정도이고, 가격도 연간 수만달러로 매우 비싸다고 한다.

치매는 기억이 저장되지 않아 한 일을 기억 못하지만, 건망증은 실마리를 알려주면 기억이 난다. 집안 일,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치매가 아닌 건망증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방법, 예방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 문의 : 301-922-9239

정신 건강

종교와 정신건강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즉 우리는 우주의 신비,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해 궁극적인 의문을 품고 살고 거기에 대한 답의 체계를 추구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나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 과학도 객관적 입장에서 존재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종교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병적인 관계의 극단에는 종교적 망상을 가진 조현증 환자들이 있다. 내가 신, 그리스도라는 망상,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서 망상적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 개인적 자아가 병적으로 팽배하는 경우다.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해 병적인 죄책감에 망상적으로 사로잡히기도 한다.

반면 종교의 대표적인 긍정적 점은 '사회적 지지 기능'이다. 코비드 시절 일상적 종교 모임이 중단된 후 많은 사람이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등 평생 처음 겪는 증상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인간을 심리적으로 조종, 갈취하는 저질의 종교적 행태도 우리는 알고 있다. 현대를 을수록 전통적 종교를 떠나 무종교, 혹은 개인적 영성으로 가는 추세가 보인다. 유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보이는 일반적 모습으로는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자라나다 대학 등으로 집을 떠나는 즈음, 아예 종교를 떠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약물 남용 등에 쉽게 노출돼 삶이 좌초되는 젊은이도 많이 있다.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기존 종교의 전통적 세계관에 한계를 느낀 경우다. 전통종교가 더 이상 개인의 삶에서 내적인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런 종교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 발달이론, 정신 병리의 이해 등이 요긴하다. 인간은 발달의 여러 주요 단계를 건너뛰

지 않고 차례차례 거쳐 나간다. 각 단계를 무난히 건강하게 거쳐 지나가던가, 또는 매 단계에서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중독과 회피로 요약되는 발달의 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많은 경우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발달 단계, 또는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보인다. 그 사람의 발달 단계가 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또 어느 단계에 중독/고착돼 있는지, 또는 억압/회피 반응이 있는지에 따라 그 개인에게 종교는 건강하게 또는 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많은 근본주의적 종교, 종파들은 인간의 더 상위의 발달을 저해하고 또는 위협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종교 및 종파의 한계도 있다. 그렇기에 개개인에게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창조적 파괴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

발달과정에는 끝이 없다. 발달에 대한 지도 공부하는 것은 발달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 종교의 가르침이 재해석되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제임스 파울러 같은 학자도 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종교, 영성을 추구하는 작업은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평생에 걸치는 작업으로 보인다. 남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영원한 남의 침묵을 감싸고 돌듯이.



김자성
정신과 전문의

건강 칼럼

한눈에 보는 비타민 가이드

비타민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우선, 다이어트로 균형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 준비가 어려운 노인들, 건강식에는 소홀한 대신 지나친 음주를 하는 사람들, 바쁜 이민 생활 속 음식을 제때 챙겨 먹기 힘든 사람들은 하루 한 알 종합 비타민 복용을 권장한다.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A는 눈의 망막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다. 일일 권장량은 남성 900mcg, 여성 700mcg인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당근, 호박, 시금치, 달걀, 우유 등에 적절히 들어있어 결핍이 드물다. 하지만 비타민A는 지용성이라 과다 복용 시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근육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타민B는 신진대사에 필요한 총 여덟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B1은 탄수화물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B2는 세포 기능과 피부 건강 촉진, B3는 에너지 생산 촉진, B5는 탄수화물과 지방 산화작용을 돕는다. 또한 B6는 신경 세포에 필요한 아미노산 대사에, B7은 단백질과 핵산 합성에 관여하며 B9과 B12는 빈혈 세포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다.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돼지고기, 콩, 계란, 닭고기, 버섯, 우유, 생선, 소고기, 콩 등에 비타민 B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B1, 2, 3, 5, 6의 일일 권장량은 50mg, B7, 9, 12는 100mg이나 수용성이라 과다복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 몸에 면역성을 높이고 콜라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감기 증상이 올 때 섭취하면 회복 기간이 짧아진다. 하루 복용 권장량은 남자 90mg, 여자 75mg으로 수용성이라 과다 복용 시 몸에서 배출된다. 오렌지, 리치, 녹색과 붉은 피망, 망고, 콜리



최승호 내과 전문의
LA 할리우드 차병원

플라워, 브로콜리, 키위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비타민C 크림을 피부에 바르면 기미를 줄이고 잔주름 개선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수용성인 비타민D는 간과 신장에 좋고 치매 방지, 면역력 강화, 골다공증, 대장암,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준다. 햇빛을 쬐 때 피부를 통해 합성되는데 주로 실내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서 비타민D 결핍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담 후 최소 일 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D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완경 여성이나 골다공증 우려가 있거나, 비타민D가 결핍된 상태라면 하루 4000~6000IU(100~150mcg)를 복용하고, 수치가 정상이거나 이미 비타민D를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하루에 2000IU(50mcg)씩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단, 지용성이라 몸의 지방 세포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 고칼혈증, 인산 혈증 등으로 혈액 순환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비타민E는 세포 호흡, 세포막 및 적혈구를 보호하고, 혈소판에 도움을 주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일일 권장량은 12mg(20m IU)으로 식물성 기름, 우유, 달걀노른자,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E는 항산화제로서 암 예방, 면역 기능 향상에 기대가 많았으나 임상 시험 결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쇠창살도 맨손으로 뜯는다”... 컴백, 마석도 형사

(마동석)

영화 ‘범죄도시4’ 3연속 천만 도전
온라인 도박 범죄 실화 모티브
“묵직한 복싱액션, 응징도 세져”



영화 ‘범죄도시4’에선 1편부터 출연한 조진숙 장이수(박지환, 왼쪽부터)가 주인공 마석도(마동석) 형사와 수사에 뛰어든다. IT 기업가(이동휘), 전직 특수전사 용병(김무열)이 새 악당으로 합류했다.

[사진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마동석 액션영화 ‘범죄도시4’(24일 개봉)가 한국 시리즈물 최초로 세번째 천만 흥행에 도전장을 냈다. 올 2월 제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포셜 갈라부문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됐던 ‘범죄도시4’가 15일 국내 언론에 공개됐다.

3편(2023)의 신종마약 사건 해결 3년 뒤 괴물 형사 마석도(마동석)와 서울 광역수사대는 배달앱을 이용한 마약 판매자를 수사한다. 수배중인 앱 개발자가 필리핀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걸 알게 된 마석도. 개발자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자살한다. 배후에 IT 기업가 장동철(이동휘),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의 대규모 온라인 불법도박 조직이 있음을 알게 된 마석도는 사이버수사대, 필리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에 나선다.

전편들처럼 국내 범죄 실화(2018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검거)가 토대다. 드라마 ‘모범택시’(SBS) 작가 오상호가 4편 각본을 맡고,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범대학원 겸임교수가 자문 및 카메오 출연을 했다.

시리즈 전체의 무술감독 허명행이 이번 4편에선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올초 공개된 넷플릭스 액션영화 ‘황야’에서도 연출자로서 주연 마동석과 합을 맞췄던 그는 15일 시사 후 간담회에서 “관객이 전편에서 어떤 걸 아쉬워했는지 알고 4편에 반영했다. 형사들의 공조수사와 팀워크, 빌런(악당) 백창기

의 전투력을 특수요원 설정으로 업그레이드해 마석도와 빌런의 대결이 더 흥미로워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리즈의 제작·기획·각색까지 지휘해온 마동석은 “마석도가 실제 처처럼 복서 출신인데, 3편에서 정교한 복싱을 보였다면 4편은 잔기술을 배제하고 좀 더 파워를 담은 묵직한 복싱을 했다”면서 시리즈의 미덕으로 “권선징악 주제와 실제 형사들의 수사기법, 엔터테인먼트(대중적 재미)”의 3박자를 강조했다.

첫 등장부터 마석도는 웃음과 액션을 터뜨린다. 엑셀을 당긴 오토바이를 한 손으로 잡아 채고, 마약 소굴 쇠창살을 맨몸으로 뜯어낸다. 살해된 개발자의 어머니, 빌딩 청소부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양아치’들에 대한 마석도의

분노와 응징은 더 세졌다.

하지만 마석도의 펀치력이 호쾌해질수록, 악당들의 위협감은 떨어진다. 3편에서도 지적된 단점이다. 1편(2017)의 조진숙 조폭 장첸(윤계상), 2편(2022)의 연쇄살인자 강해상(손석구)에 비하면 캐릭터의 존재감이 아쉽게 느껴진다.

칸 국제영화제 초청 범죄영화 ‘악인전’(2019)에 이어 마동석과 재회한 김무열은 백창기 캐릭터에 대해 “사람을 해치는 기술을 직업적으로 익히고 먹고 산 인물”이라고 해석했다. 백창기는 가공할 상상 능력을 가졌지만, 한 치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극의 몰입감을 떨어뜨린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2023)에서 필리핀 도박 범죄에 뛰어 들었던 배우 이동휘는 장동철의 안하

무인 성격을 맛깔나게 살리지만, IT 천재이자 지능형 범죄자란 설정은 공감 가계 잘 풀어내지 못했다.

베를린 영화제 공개 당시 외신에선 “새로운 관객을 사로잡지 못할 순 있지만, 기존 팬을 실망시키진 않는다”(스크린 인터내셔널)는 평가가 나왔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가장 기본 좋은 요소는 악당이 완전히 소탕될 거란 사실을 시작부터 알고 본다는 것이다. 관객에게 지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데드라인), “마동석의 펀치에선 3층 발코니에서 소고기를 떨어뜨렸을 때와 비슷한 소리가 난다. 화가 났을 땐 7층에서 떨어뜨린 소리”(롭 토마스) 등의 평가도 있었다.

개봉을 8일 앞둔 16일 현재 ‘범죄도시4’의 예매량은 15만 장이 넘는다. 해

외 반응도 뜨겁다. 한국과 동시 개봉하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북미·영국·이탈리아·스페인·인도·일본·태국·중동 등 164개국에 선판매됐다. 시리즈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8편까지 계속된다. 현재 5~8편 시나리오를 작업 중이다. 지난해 3편 개봉 당시 마동석은 할리우드에서 시리즈 리메이크 제안을 받고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월 극장가에서 ‘범죄도시4’의 유일한 적수는 ‘쿵푸팬더4’(10일 개봉) 정도다. 이번 4편도 천만 흥행할 경우 마동석은 ‘부산행’(2016), ‘신과함께’ 1·2부(2017·2018), ‘범죄도시’ 2·3편에 이어 6번째 천만 영화를 갖게 된다. 카메오 출연한 ‘베테랑’(2015)을 포함하면 7번째다. 나원정 기자

‘푸틴 발레리나’ 이어, 볼쇼이 발레단 공연도 취소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무용수들이 출연 예정이던 ‘발레엔모텔 슈퍼콘서트 2024 in 서울’ 공연이 취소됐다. 이 공연을 기획한 ‘발레엔모텔’이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과 공연내용 변경을 두고 갈등 끝에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12일 이유없음으로 기각됐고,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해당 공연의 변경 심의가 부결됐음을 알렸다. 공연예정일인 16일까지 공연 내용을 원안대로 되돌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공연은 당초 ‘볼쇼이 발레단 갈라 콘서트 2024 in 서울’이란 명칭을 걸고 “볼쇼이 발레단을 세계 최고로 이끌고 있는 마하르 바지예프 단장의 지휘 아래 볼쇼이 발레단을 대표하는 수석무용수가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홍보됐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예정이던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내한 공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전격 취소되자, 기획사는 지난달 28일 공연명

을 변경하고 공연 내용과 출연진도 바꿨다. 지난해 10월 대관 승인 당시 기획(수석무용수 12명 포함, 20명이 출연하는 12장 형식)이 수석 6명 등 총 8명이 나오는 10장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은 대관 재심의를 통보했고, 기획사는 서류를 제출해 재심의 받는 대신 지난 4일 법원에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후 9일야아 출연자 사증 발급확인서를 제출해 11일 대관 승인 당시의 외부 심사위원들과 동일하게

구성된 대관심사위원회가 열려 공연 변경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12일 법원도 계약가처분 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신규 공연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당한 변경으로, 현 내용으로 최초 대관심을 진행했다면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변경 신청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발레엔모텔은 볼쇼이 발레학교를 나온 최준석 대표가 2016년 설립한 학원사업체로, 최근 한국에 볼쇼이 발레학교를 세운다는 목표로 볼쇼이 무

용수들의 공연을 유치했다. 최 대표는 “정치적 이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인데 공연장이 경미한 내용 변경을 트집잡았다. 자하로바 공연이 취소된 만큼 더 강력한 공연을 위해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인주 무용평론가는 “공연기획사가 먼저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변경해 놓고 책임을 공연장에 미루는 건 모순”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 매뉴얼을 따를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주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룸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네버쿠젠’의 반란... 뮌헨 11년 천하 끝내다

〈절대 우승 못할 레버쿠젠〉

“더는 2인자가 아니다. 레버쿠젠이 마침내 ‘준우승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우승의 꿈을 이뤘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는 15일(한국시간) 창단 1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스터살레(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따낸 바이어 레버쿠젠의 우승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레버쿠젠은 이날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9라운드 홈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5-0으로 대파했다.

이로써 선두 레버쿠젠(승점 79·25승 4무)은 2위 바이에른 뮌헨(승점 63·20승 3무 6패)과의 격차를 승점 16으로 벌리며 남은 5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동시에 지난 시즌까지 11연패를 달성한 ‘거함’ 뮌헨의 독주도 저지했다. 1904년 7월 제약회사 바이엘의 노동자들이 모여 창단한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컵 대회를 포함해도 1992~93시즌 독일축구협회(DFB)포칼 이후 31년 만의 우승이다.

레버쿠젠은 차범근이 활약하던 1987~88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독일의 강팀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독 분데스리가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준우승만 다섯 차례 기록했다. 차범근이 뛰던 여섯 시즌(1983~89년) 동안 레버쿠젠의 리그 최고 성적은 6위였다. 손흥민(토트넘)도 레버쿠젠에서 두 시즌(2013~15년)을 뛰었는데 모두 4위에 머물렀다. 결국 ‘네버쿠젠(Neverkusen-



1 분데스리가 제패 직후 맥주 세례를 받는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가운데). 2 그라운드에 난입해 창단 후 120년 만의 첫 우승을 만끽하는 레버쿠젠 팬들. 3 브레멘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는 레버쿠젠 공격수 보나페이스.



2 그라운드에 난입해 창단 후 120년 만의 첫 우승을 만끽하는 레버쿠젠 팬들. 3 브레멘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는 레버쿠젠 공격수 보나페이스. [AP·AFP·연합뉴스]

절대 우승 못할 레버쿠젠이란 뜻)이란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었다.

이날 우승이 확정되자 수만 명의 홈팬은 그라운드로 난입해 선수들과 일사 안았다. 바이엘 본사가 있다는 것 외엔 내세울 게 없었던 독일 서부의 소도시(인구 16만명)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우승 덕분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2022~23시즌 도중인 2022년 10월 ‘소방수’로 사비 알론소(스페인) 감독을 데려온 게 레버쿠젠에 ‘신의 한 수’가 됐다. 43세 알론소는 레버쿠젠 이전엔 프로 1군 지도 경험도 없는 초보 감독이었지만, 베테랑 맞짱은 지도력을 발휘했다. 부임 당시 17위였던 팀을 6위로 끌어올린 그는 올 시즌엔 리그 29경기

창단 120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 차범근·손흥민 거쳐간 ‘노동자팀’ 25승 4무... 남은 5경기 관계없이 우승 알론소 감독 부임 1년 만에 쾌거 “이제 무패 우승 전설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이적에 앞서 두 시즌 동안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다. [AP·연합뉴스]

에서 무패(25승 4무)를 달리며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알론소는 2016~17시즌 뮌헨에서 은퇴했는데 당시 감독이 현재 세계적인 명장으로 꼽히는 펠라그리니(스페인) 맨체스터시티 감독이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배운 전술 구사 능력이 일찌감치 만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버쿠젠의 기록 행진은 계속된다. 남은 5경기에서도 패하지 않으면 무패 우승의 전설을 쓴다.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은 없었다.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도 무패 우승은 보기 드문 기록이다. 2000년 이후로는 2003~04시즌의 아스널(잉글랜드)과 2011~12시즌의 유벤투스(이탈리

아만 달성했다.

레버쿠젠은 또 다음 달 26일 DFB포칼 결승에서 카이저슬라우테른과 우승을 다툰다. UEFA 유로파리그 8강에도 진출했다. 1차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2-0으로 이겨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3관왕을 노려볼 만하다

반면 ‘괴물 수비수’ 김민재와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잉글랜드)을 영입해 12연패를 노렸던 뮌헨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우승을 놓쳤다. 케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했다. 공교롭게도 매 시즌 우승했던 뮌헨은 케인이 오면서 우승이 끊겼다. [AP·AFP·연합뉴스]

통역사 리스크 날렸다... 오타니, 이제 최다홈런 도전



14일 샌디에이고전에서 희생플라이 타점을 올리는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AP·연합뉴스]

미 연방검찰 “오타니는 피해자” 다음날 MLB 통산 175호 홈런 일본인 빅리거 최다홈런 눈앞

통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에서 자유로워진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이제 일본인 메이저리거 최다 홈런을 노린다.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50)와 175홈런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 역사를 눈앞에 뒀다.

오타니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

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나와 1회말 좌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빅리그 통산 175호 아치를 그리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마쓰이가 작성한 일본인 메이저리거 최다홈런 기록을 따라잡았다. 또, 아시아인 신기록인 추신수(42)의 218홈런에도 43개 차이로 다가섰다.

최근 들어 오타니의 방망이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이날 샌디에이고전까지 8경기 내리 안타를 때려내며 개막 초반 떨어진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비록 14일 샌디에이고전에선 연속 안타 행진이 끊겼지만, 3-1로 앞선 6회 1사 2, 3루에서 터뜨린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비롯해 1타수 1타점 2볼넷을 기록하면서 5-2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타격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오타니의 전 통역인 미즈하라 잇페이(40)의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조사한 연방검찰은 지난 12일 미즈하라를 은행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타니의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22억원) 이상을 몰래 빼돌려 도박업자에게 송금했다. 계좌로 연결된 오타니의 연락처 정보를 바꿔 놓는 수법으로 발각을 피해왔다”면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도박 행위를 알았거

나 함께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오타니의 빅리그 175번째 홈런은 연방검찰의 수사 발표 다음날 나왔다.

한편 오타니와 지난 6년간 동고동락하다 범죄자로 전락한 미즈하라는 LA 연방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고 일단 풀려났다. AP통신은 “미즈하라의 보석에는 3500만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서명만 하면 보석이 허용된다. 만약 미즈하라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 금액을 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즈하라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타니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P·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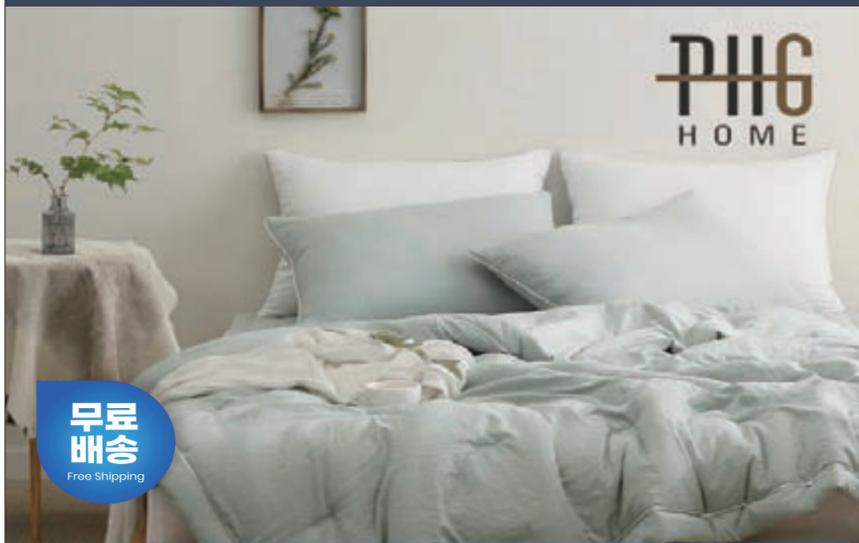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결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izer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젼™』 \$58 (100회치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 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성, 질 팔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0 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데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0 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5 캡슐 1 병 & 20 캡슐 1 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말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돼지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영구적으로 사용) 말초처럼 까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했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봄맞이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톱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백화점에 입점된 박흥근 홈패션

45년 고품격 디자이너 침구브랜드 & 신개념 에어워싱 기술
박흥근 PHG홈 **한국산 봄 에어워싱 차렵이불**

퀵사이즈 차렵이불 Blue, Pink, Mint ~~₩130~~ **\$99**

BiFLEX Face & ActiveWing Rebound Frame One Tone concept design

무료 배송 Free Shipping

맥스 디스턴스 DIAWINGS 골프공 6구 증정

XXIO NEW 2024 다이아윈스 골프공 [6구 증정]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남성/여성용 **아이언세트**

5pcs 6,7,8,9,PW ~~\$1099.99~~ **\$1099.99** 7pcs 5,6,7,8,9,PW,SW ~~\$1539.93~~ **\$1539.93**



무료 배송 Free Shipping

100% 천연 유기농 CBD, 안전한 힐링CBD (THC 0.03%함유)

만성통증, 염증, 불면증에 효능, 암 증상 및 우울증, 뇌전증 개선

풀 스펙트럼 **유기농 CBD 통증크림**

CBD1000mg ~~\$59.95~~ **\$59.95** CBD2000mg ~~\$79.95~~ **\$79.9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태국의 인삼 흑생강! 자색 생강, 파비플로라, Black ginger

72시간 국내산 저온액 추출공법으로 생산한 그라차이담 마일드

그라차이담/흑생강 파우치 70ml x 30packs

핫딜 출시 이벤트 특별세일 ~~\$119.99~~ **\$9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DIY KIT 2박스 쌀누룩 고추장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인공조미료나 첨가물없이 우리 가족 먹을 고추장을 직접 제조

다산명가 **쌀누룩고추장 DIY Kit**

물붓고 섞으면 끝! 100% 한국산 원료 ~~\$49.90~~ **\$34.50**

이벤트 2개 사면 \$40

BEST 토너패드

무료 배송 Free Shipping

2개구매시 \$40 저자극 콜라겐을 짹 짹 담아 탱탱하게!

압도적 1위 토너패드! 탄력케어 주름개선 데일리 케어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100매

1개 ~~\$22~~ **\$22** 2개 ~~\$40~~ **\$40**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실수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수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종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cva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 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티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구독신청 : 703-281-9660,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4채 매매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200/m
- 매매가: \$5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중앙일보**

자동차 메카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카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카닉, 준메카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카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제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필그림유치원에서 토틀러반
오후 파트타임 선생님 구합니다.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매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 최적의 위치·시설
-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약,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주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군
410-599-1800 문자요망

스포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난데일 메시야장로교회 뒤편 타운하우스
지하실 방 하나 렌트. 목욕탕, 화장실
703-887-517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 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햄 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 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 용이. 395 exit 근처
집안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래게실 분
702-622-8853

MD 렌햄 지역. 조용·교통 편리, 직장인 환영.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생활안내 광고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쇼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데이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렐름버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순렌트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진입로 특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얏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예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생활안내 703-281-9660(문자)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자정도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엽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특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밀폐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더 C
·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춘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피아노(Sohmer & Co)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Tel. 240-477-2612(문자)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순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 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꺼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켄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랩 (스페인제) 3—9 P S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대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족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아이언 셋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합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 베레스 4 스타, Regular, 9, 5도 아이언셋 :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사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 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임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더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크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드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헬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워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민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으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함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방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onnie: Have you talked to Merle lately?
카나: 요즘 멀리 이야기 해봤어?
Theresa: Not for a week or two. Why?
타리사: 12 주 사이에는 없었는데, 왜?
Connie: Well I've had it with her. I'm not talking to her anymore.
카나: 그게 멀리는 짜증나서, 애기도 안 해.
Theresa: When did this come about?
타리사: 언제 이런 일이 생겼어?

Connie: A few days ago. I don't remember exactly when.
카나: 며칠 전이야. 정확히 언제는 기억 안 나.
Theresa: You've never gotten along with her very well.
타리사: 멀리는 그렇게 잘 지낸 적이 없잖아.
Connie: That's true. I don't like the way she puts people down all the time.
카나: 그건 그렇지. 멀리는 항상 사람들 헐뜯는데

그게 싫어.
Theresa: I'll admit that's annoying.
타리사: 그게 유쾌하지 않겠다.
Connie: Then why do you still like her?
카나: 그런데 어떻게 멀리하고 잘 지내?
.....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about: 일어나다. 생기다.
"His desire to learn English came about in high

school."
(그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마음이 생겼다.)
▶ get along with (someone): (누구와) 잘 지나다.
"She doesn't get along with her sister."
(그 여자는 언니와 잘 못 지내.)
▶ put (someone) down: (누구를) 헐뜯다, 비난하다.
"I don't know why he enjoys putting me down."
(그 사람은 왜 날 헐뜯는데 재미를 붙였는지 모르겠어.)

have had it with (someone or something) (누가 무엇이) 짜증나다

(Two friends are having lunch...)
(친구 둘이 점심을 먹으며...)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 개인이나 단체를 선으로 이끌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천사 (4)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음.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유□□ (7) 품질이 좋은 비단. 얇고 섬겨서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쓴다. ~ 땀 (8) 종이와 붓과 먹 (10) 쇠로 만든 물건 (11) 체조 경기 종목의 하나인 뽀름 운동에서 쓰는 기구. 안마에서 손잡이를 없앤 것 (12) 통째로 삶거나 구워서 익힌 음식. 닭, 꿩 또는 물고기 따위를 통째로 양념하여 구운 적 (14) 몹시 사납고 잔인한 짐승. 미녀와 ~ (16) 철사로 그물처럼 엮어 만든 물건 (17)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18) 자신의 출신 학교를 먼저 졸업한 사람 (20) 오세아니아 (22) 물고기의 배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23) 어떤 임무나 직무를 먼저 맡음. ~ 연구원 (24) 얇게 자른 유자를 꿀이나 설탕에 젤 것 (26) 언니와 여동생 (28)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 환영하거나 찬성함 (29)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서로 뒤바뀜

세로 열쇠

(1) 죄인이나 피의자의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2)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3)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 (4) 말이 적고 침착함 (5)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음 (6) 과거(科擧)에 붙음.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함. 장원 ~ (9) 활자가 아니고 손으로 쓴 글씨체 (11) 폭약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심지 (12) 사랑을 멀리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지어 만든 대 (13) 온도계의 유리 대롱에 채워진 빨간색 또는 은색 기둥 부분 (15) 쇠가죽에서 벗겨 낸 질긴 고기 (19)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대하고 있는 땅의 형세. 예로부터 ~의 땅은 경치도 좋고 살기에도 편리한 곳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21) 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22)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23) 배 (24) 머지않아 제주도에서부터 노란 이 꽃 개화 소식이 들리겠조. 열매로 기름을 짜내고 붙은 이름 (25) 다 익은 술에 용수를 박고 따낸 술 (27) 물건이나 집 따위를 남에게 팔아넘김

스도쿠

5				4				1
				8				
7				1				4
9	5							1 8
				8		5		
2	7						4	6
4				6				2
				3				
8				5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9	1	2	5	7	4	3	8
5	8	4	6	3	7	9	2	1
2	7	3	8	9	1	6	5	4
6	9	5	1	6	3	8	7	2
3	6	2	5	7	4	8	1	9
4	9	1	3	6	2	7	8	5
7	3	6	2	4	7	1	8	5
3	1	9	8	6	5	4	7	2
5	6	8	4	7	2	9	3	1

① 워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카드 번호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매가 \$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아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한식당
 경험자 우대 숙소제공 가능 연봉 협의후 결정 오레곤주 포틀랜드 (971)451-9022

이민생활의 나침반 안내광고 (213)368-2525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통함,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뉴스 통합 모바일 App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 최대 할인 업체 Up to 40% 할인 혜택!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전산할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 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평상시 삼삼음육당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국으로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 중 일월만 인증 UL
- 침질방 효과 탄소원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원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합계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펫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	---	--	--	--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